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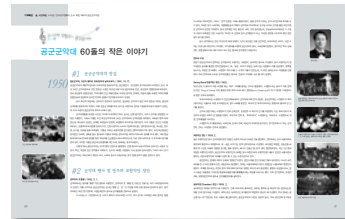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밝은 힘

공군



구약대 생활은 즐겁습니다





- 06 삼각지 논객 대한민국 공군, Peace Eye 도입을 축하하며...
- 08 Pioneers up above 항공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와 동력항공기의 출현
- 10 World-Wide Vision 고독한 레인저
- 14 Global AF 태평양 전쟁 최대의 해상 공중전, 마리아나 항공전
- 18 Leadership+ 걱정이 없는 삶



- 20 기획특집 공군악대 60들의 작은 이야기
- 32 Photo Sketch 공군과 함께 키우는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 '2011 공군항공우주캠프'
- 34 포토프레임@AF
- 36 AIR FORCE MONTHLY
- 38 생각하는 그림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줄게

COVER STORY



공군악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6명의 젊은 군악대원들이 월간 「공군」 표지촬영을 위해 모였습니다. '끼'와 '열정'이 넘치는 군악대원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새롭게 도약할 공군악대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표지촬영 김윤해 | 프리랜서 사진작가

CULTURE 36.5

42

OPINION

04



- 42 Hollywood English 휴고
- 44 인생은 아름다워 호프만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
- 46 Art in Everyday 도시에서 농부로 살기
- 48 Air-Supply 유명유죄 무명무죄(有名有罪 無名無罪)
- 50 Preview 9월의 문화행사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7월호를 읽고서
- 52 장병기고 진정한 가을은 오고 있나
- 54 Health Diary 건강검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 56 책마을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화

MONTHLY MAGAZINE

VOL. 399. 2011. 09

발행일자 2011년 8월 31일(통권 제399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7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반가움**이다. 한 달에 한 번 우편함에 월간 「공군」 01 이 꽂혀있을 때 무척이나 반갑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이 담겨있을 때의 반가움은 늘 정겹다. 이번 호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기사는 <기획특집> '보라매들의 여름철 임무현장' 이었다. 648기 운전병으로 부대 곳곳을 둘러봤던 제계 공군인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되어 참 좋았습니다. <Hollywood English>의 '내 이름은 칸'도 제 생애 최고의 영화 세 편에 드는 영화였는데 '용서' 라는 테마가 참 좋았습니다. - 서울 성복구, 이흥구

02 월간 「공군」은 **고향**이다. 공군가족들이 그리움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감명깊게 읽었던 글은 <창공글터>의 '조종사는 풀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공군의 핵심전력이자 상징인 조종사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인상적인 글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 택배역할을 하는 월간 「공군」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 서울 동작구, 이수은

월간 「공군」은 **나라**이다. 나라를 지키는 공군이니까! 공군이 03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번 호에서는 <Air-Supply>의 '이 세상 비호감들을 위한 위로가, 최고의 사랑' 이 가장 재밌었다. 정말 재미있게 시청한 드라마여서 그런지 더욱 더 흥미로웠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월간 「공군」 다음 호에도 잘 부탁드립니다요! 다음 호에도 많은 기사 부탁드립니다요. 그리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 - 전남 순천시, 서정이

04 월간 「공군」은 **등대**이다. 군생활이 답답하고 지루할 때,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할 때, 월간 「공군」이 빛이 되어 문화, 교양, 지식, 간접체험까지 어두웠던 세상을 보는 눈을 밝혀줍니다. 이번 호에서는 <Hollywood English>의 '내 이름은 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용서는 바이올렛 꽃이 자기를 밟아 버린 누군가의 발뒤꿈치에 뿌려주는 향기와도 같다는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한 문장만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도 아름다운 포용과 사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서울 동대문, 류휘상

월간 「공군」은 **호흡**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할 수 있음에 05 감사하며, 내 몸의 일부와 같이 항상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부분, 바로 월간 「공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eadership+>가 있긴 하지만, 섬기는 리더십으로 확묵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분의 인터뷰도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늘 첫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많은 맘과 수고의 결실을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경남 사천시, 최덕희

06 월간 「공군」은 **지식**이다. 공군에 복무하고 있지만 정작 공군의 역사나 전투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내게 매달 공군인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후임들에게 유식하고 본받을 만한 선임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호에서는 <World-Wide Vision>의 '천둥을 일으키는 마법사' 라는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Black Eagles'가 떠오르더군요. 이글루 앞을 지나다보면 정비사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평소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 기사를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 강원 원주시, 최현중



Global & Insight

대한민국 공군의 Peace Eye 도입을 축하하며

* 삼각지 논객

항공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와 동력항공기의 출현

* Pioneers up above

고독한 레인저

* World-Wide Vision

태평양 전쟁 최대의 해상 공중전, 마리아나 항공전

* Global AF

걱정이 없는 삶

* Leadership+



대한민국 공군의 Peace Eye 도입을 축하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조기경보기 보유

“창군 62년 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공군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갖추게 됐다.”

올해 8월 1일, 공군 김해기지 활주로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E-737) 1호기가 사뿐히 착륙함으로써 공군은 오랜 숙원 하나를 풀었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운용 중인 조기경보기를 하루빨리 확보해 독자적 감시작전능력을 갖추는 것은 공군뿐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염원이었다.

일명 ‘피스아이(Peace Eye·평화감시자)’로 명명된 조기경보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공군’이란 글씨와 태극마크가 선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조기경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피스아이는 B-737 민항기를 개조한 최신기종으로 성능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운용 중인 기종보다 월등히 앞선다. 조기경보기의 핵심장비인 레이더만 보더라도 차이가 확연하다. 기존 조기경보기의 레이더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며 목표물을 탐색하는 방식이어서 감시 도중 사각지대와 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피스아의 동체 상단에 탑재된 다기능전자식위상 배열(MESA) 레이더는 동시에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다. 무게가 2이 넘는 이 레이더에선 한 번에 사방으로 레이더 빔을 쏘기 때문에 사각지대나 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레이더의 평소 탐지거리리는 약 370km이고,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경우 탐지거리가 최대 500km까지 늘어난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중과 해상에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MESA 레이더를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면 통신감청으로 고급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피스아이가 수집한 정보들은 오산기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공군비행단과 전투기, 육·해군, 해병대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가히 ‘하늘의 전투지휘사령부’로 불릴만하다. 이런 가공할 능력 때문에 조기경보기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내년엔 3대가 추가로 공군에 인도돼 본격 운용되면 한국군은 북한 영공과 영해에 배치된 북한군 전력 동향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독자적 대북정보수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주변국의 영유권 분쟁과 정보전 양상을 봐도 조기경보기의 도입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이 격화된 이후 서로 공중정찰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중국의 조기경보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넘어 양국 중간선까지 침투해 정보수집을 하다 일 항공자위대가 긴급발진하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이에 맞서 일본 자위대는 거의 매일 난세이(南西) 제도 부근 영공에 초계기와 정찰기를 띄워 중국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토와 영해를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은 숙제도 적지 않아

피스아이 1호기의 도입으로 공군은 ‘우주선진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 공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몇년 전 독자기술로 J-10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한 중국은 최근 5세대 첨단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되는 J-20의 막바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지난해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J-20의 첫 비행을 실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관진 국방부장은 올해 7월 중국 창저우 공군기지를 방문해 중국군 관계자로부터 J-10의 현황을 청취하고, 시험비행을 관람한 뒤 “J-10 전투기는 F-16 전투기와 유사하며 수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일본 항공자위대는 4차에 걸쳐 200여 대의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한편 독자기술로 신심(神心)이라는 이름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07년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를 100대 구매하고 싶다고 미국에 제의했다가 주변국의 반발과 미국의 판매불가 방침에 부딪히기도 했다. 주변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래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공군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 군도 공군력 강화에 전걸음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7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해외구매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FX 사업은 2016년 말까지 8조 2,900억 원을 투입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에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미국 보잉의 F-15SE와 록히드마틴의 F-35,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러시아 수호이 T-50 ‘PAK-FA’ 등 4개 기종이 후보인데, 내년 말 최종 기종이 선정될 예정이다.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및 개발추세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군이 최소한의 역지력을 보장하려면 적정수준의 스텔스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FX사업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소요군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의 전투기 운용 실태를 냉정히 재평가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460여 대의 전투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F-5, F-4 등 30~40년간 운용한 노후 기종으로 시급히 다른 기종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7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16 전투기급 이상의 한국형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보라매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개발일정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년간 예산삭감과 사업일정 연기가 반복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공중급유기(KCX) 사업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 최강 전투기인 F-15K를 운용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 공군에게 공중급유기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전장에서 전투기의 무장력과 타격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급유기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신에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잉사의 KC-767J 급유기를 4대나 도입해 운용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12위 경제강국의 위상을 뒷받침하고, 국익수호를 위해 강력한 힘을 기르는 것은 미래 국가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공군력이 21세기 국가와 국익을 수호할 첨병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AF**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Peace Eye



공중급유기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신심(神心)



중국의 J-10 전투기

항공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와 동력항공기의 출현 ①

바람개비에서 시작된 꿈

윌버와 오빌 라이트(Wilber & Orville Wright) 형제는 오하이오의 데이톤(Dayton)에서 자랐다. 어느 날 시골교회의 주교였던 부친이 윌버에게 바람개비를 사다 준 적이 있었다. 바람개비에 큰 흥미를 보이던 윌버는 학교 수업시간에 이를 가지고 놀다 담임 여선생님에게 발각됐다. 그때 어린 윌버는 “이 다음에 저는 이런 걸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윌버의 꿈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 일화는 어린 윌버가 비행의 꿈을 갖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후,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거포를 운영하며 비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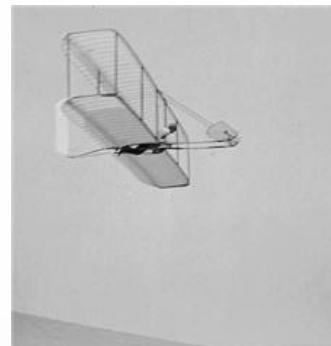
먼저 5피트 크기의 2층 연을 만들어 하늘에 띄웠다. 실험장소는 유명한 철로교량 설계사이자 ‘비행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옥타브 사누(Octave Chanute)의 조언과 기상청의 바람자료를 참고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장소가 대서양의 질 좋은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노스 캐롤라이나 키티호크의 킬 데블 언덕(Kill Devil Hills)이었다.

비행의 원리는 단순했다. 연 날개를 볼록하게 휘어지게 만든 후, 바람을 타면 무거운 2층 연이 공중으로 상승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글라이더 모양으로 바뀌었고, 1900년과 이듬해 키티호크에서 2회에 걸쳐 유인 글라이더를 시험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오하이오 주의 데이톤에서 항공과학연구에 진력한 형제는 200회 이상 글라이더 모형을 시험비행하면서 항공역학적으로 안정된 유인 글라이더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또한 1902년 키티호크에서는 1,000회에 이르는 시험비행을 통해 유인 글라이더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하였다.

형제는 글라이더에 장착할 엔진을 널리 수소문했다. 그때 엔지니어 찰리 테일러(Charlie Taylor)가 나타나 6주 만에 라이트 형제가 요구하는 알루미늄제 엔진을 만들어 준다. 이 엔진은 ‘라이트/테일러’ 엔진이라 명명(命名)되었는데, 훗날 연료분사식 가솔린엔진의 효시가 된다. 프로펠러 체인은 형제가 자전거체인을 응용, 가볍고 강한 소재로 만들어 조립했다. 이렇게 제작된 플라이어의 가격은 1천 불이었는데, 당시 미 전쟁성은 성공하지도 못한 사무엘 랭글리의 날틀(Aerodrome) 프로젝트에 5만 불이나 지급하고 있었다.



라이트 형제의 2층 연



윌버 라이트의 글라이더 비행(1902. 10. 2, Kill Devil Hills, North Carolina)

마침내 실현된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

1903년 12월은 라이트 형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켈 데블 언덕의 캠프에서 플라이어 I의 엔진점검 중 프로펠러 샤프트¹⁾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주간 비행이 지연되었다. 이를 수리하느라 720마일이나 떨어진 오하이오 데이튼까지 두 번이나 왕복하며 작업해야만 했다.

수리가 끝난 12월 13일은 날씨가 좋았지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쉬었다. 다음 날 월버가 첫 비행에 나섰지만 3초간 비행하고 떨어지면서 항공기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 항공기를 수리하느라 3일을 쉬었다. 17일, 드디어 라이트 형제는 43kph의 칼바람 앞에서 2차례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비행고도 3m에서 오빌이 첫 번째로 12초 동안 37m를 비행했고, 월버가 53m와 61m를 연달아 비행했다. 마지막으로 오빌이 비행에 나서 59초간 260m를 날았지만, 돌풍 속에 항공기가 착륙하면서 러더²⁾가 부러지게 된다.

라이트 형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아둔 후, 데이튼의 부친에게 전보를 쳐 '데이튼 저널'에 보도를 요청한다. 그러나 '데이튼 저널'은 비행이 너무 짧아, 중요한 기사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당시 영동한 날조기사로 유명했던 '버지니아신문'은 전신국 직원이 무단으로 제보한 전보내용을 바탕으로 '밀저야 본전' 식으로 이를 기사화했고, 다음 날에는 '데이튼 저널'을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들이 이를 받아쓰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사적인 순간은 날씨가 하도 추워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라이트 형제에게는 이를 입증해줄 증인들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총 다섯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해안경비대원 3명과 주민 2명이 인류의 첫 비행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1904년, 라이트 형제는 오하이오의 허프만 프레이리(Huffman Prairie)³⁾에서 러더와 보조날개를 이용한 플라이어 II로 45분 동안 비행하는데 성공한다. 다음 해인 1905년, 선회비행이 자유로운 플라이어 III로 38분 동안 40km의 비행 기록을 수립하는데, 이는 라이트 형제의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떨치는 계기가 된다. **AF**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오빌과 플라이어 II(1904. 11. 16, Huffman Prairie, Ohio)



오빌과 플라이어 III(1905. 10. 5, Huffman Prairie, Ohio)

1) 엔진에서 얻은 동력을 프로펠러로 전달해주는 장치

2) 비행기의 수직꼬리날개에 부착된 가변형 조종면으로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3) 허프만 프레이리는 현재 미 공군에서 가장 큰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의 활주로 끝에 국립항공역사공원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허프만 프레이리 공원 근처에는 라이트 형제의 묘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간 50만 명에 이르는 항공마니아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고독한 레인저 Lone Ranger

61일의 드라마. 61일 동안 진흙탕, 폭우, 산악지형 및 늪지대를 헤쳐 나가야 하고, 61일 동안 극도로 부족한 식량과 취침을 견뎌야 하며, 61일간 계속되는 구보, 사격, 로프 등반, 하강 및 포복 등의 고난도 훈련. 61일간 포기하라는 악마의 끊임없는 유혹을 뿌리치고, 열악한 지형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미 육군 레인저 훈련학교이다. 레인저 훈련학교는 미군 최고의 장병을 소집하여, 더욱 혹독한 군사 훈련을 통해 전장에서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리더로 탈바꿈 시키는 정예 훈련과정이다. 하지만, 이곳 레인저 훈련학교가 미 육군 장병만을 위한 곳은 아니다. 공·육·해 전군 소속 장병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군 장병 또한 레인저 스쿨 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

미 공군 장병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 레인저 훈련학교 과정에 참가했다. 이미 수백 명의 공군 장병들이 선망의 대상인 레인저 기장을 획득하기 위해 조지아 주 포트 베닝 기지에 있는 레인저 스쿨을 거쳐갔고, 공군, 육군, 해군 및 해병대가 합동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오늘날 전장에서 실전적 전투 리더십은 모든 군인에게 필수적인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공군 장병에게 있어서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에드워드 맥코크렐(Edward McCorkell) 하사 역시 그러한 사람 중 하나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포프 육군 항공기지의 전술항공통제관인 그는 육군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는 최근 미 육군 레인저 스쿨을 졸업하였고, 그곳에서 유일한 공군이라는 점이 그를 외롭고, 힘들게 했겠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파병을 가면, 육군 내지 타군 동료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항상 그들 곁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육군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맥코크렐 하사는 악명 높은 포트 베닝 기지의 미 육군 레인저 훈련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매년 지원하는 수백 명의 젊은이 중 하나였다.

개개인마다 각자 이유가 있지만, 모든 레인저 스쿨 후보생에게 한 가지의 공통된 목표가 있다. 바로, 훈련과정을 통과해서 빛나는 레인저 기장을 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한다.

“레인저 훈련학교를 통과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죠.” 레인저 훈련 여단의 주임 원사인 데니스 스미스(Dennis Smith)가 말한다. “하지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후보생들이 전투상황에서 동료를 이끌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레인저 스쿨 후보생의 둘 중 하나는 졸업을 하지 못한다. 이는 약 50%의 인원이 도중하차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는 후보생들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계속 작용한다.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코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맥코크렐 하사가 말했다. “항상 교관들은 너희 동기들 중 겨우 절반만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강인한 정신력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마인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술항공통제관 에드워드 맥크르켈 하사가 미 육군 레인저 스쿨의 야전훈련 중, 가상 탈레반 기지 공격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공군 에드워드 맥크르켈 하사(중앙)는 육군 레인저 스쿨에서 함께 훈련받은 동료 중 유일한 공군 출신이었다. 조지아 주 프랭크 매릴 기지에서 산악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레인저 스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후보생을 의도적으로 지치게 만든다. 그리고 배고픔, 취약함, 육체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요구한다.

“레인저 훈련과정은 자신을 전혀 다른 레벨로 끌어올리게 합니다.” 레인저 훈련여단의 여단장, 존 킹(John King) 대령이 말한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기존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소 첫날부터 도전은 시작된다. 레인저 스쿨의 첫 번째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는, ‘예고 없이 가차 없는 훈련을 통해, 어디 견딜 수 있나 보자’ 라는 식의 초기 테스트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선, 후보생들의 체력평가를 한다. 2분간 팔굽혀펴기 49회, 2분간 윗몸일으키기 59회, 5마일 40분 주파 및 최소 6회의 턱걸이를 모두 해내야 하고, 두려운 전투수중생존훈련과 여러 장애물극복코스를 완수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후보생들을 녹초로 만들어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기능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린 이 첫 단계를 ‘기어 다니기’ 단계 (또는 ‘걸음마 단계’)로 부릅니다.” 레인저 스쿨 교관인 대니얼 클라크 하사가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주로 많은 후보생들이 낙오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치기도 하고, 낙오하기도 하며, 일부는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맥코르켈 하사에게 이런 선택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저는 들어올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 이미 레인저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 있어서, 레인저 스쿨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맥코르켈 하사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레인저 스쿨에 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그 덕분에 훈련학교를 무사히 소화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첫날부터 쉬웠냐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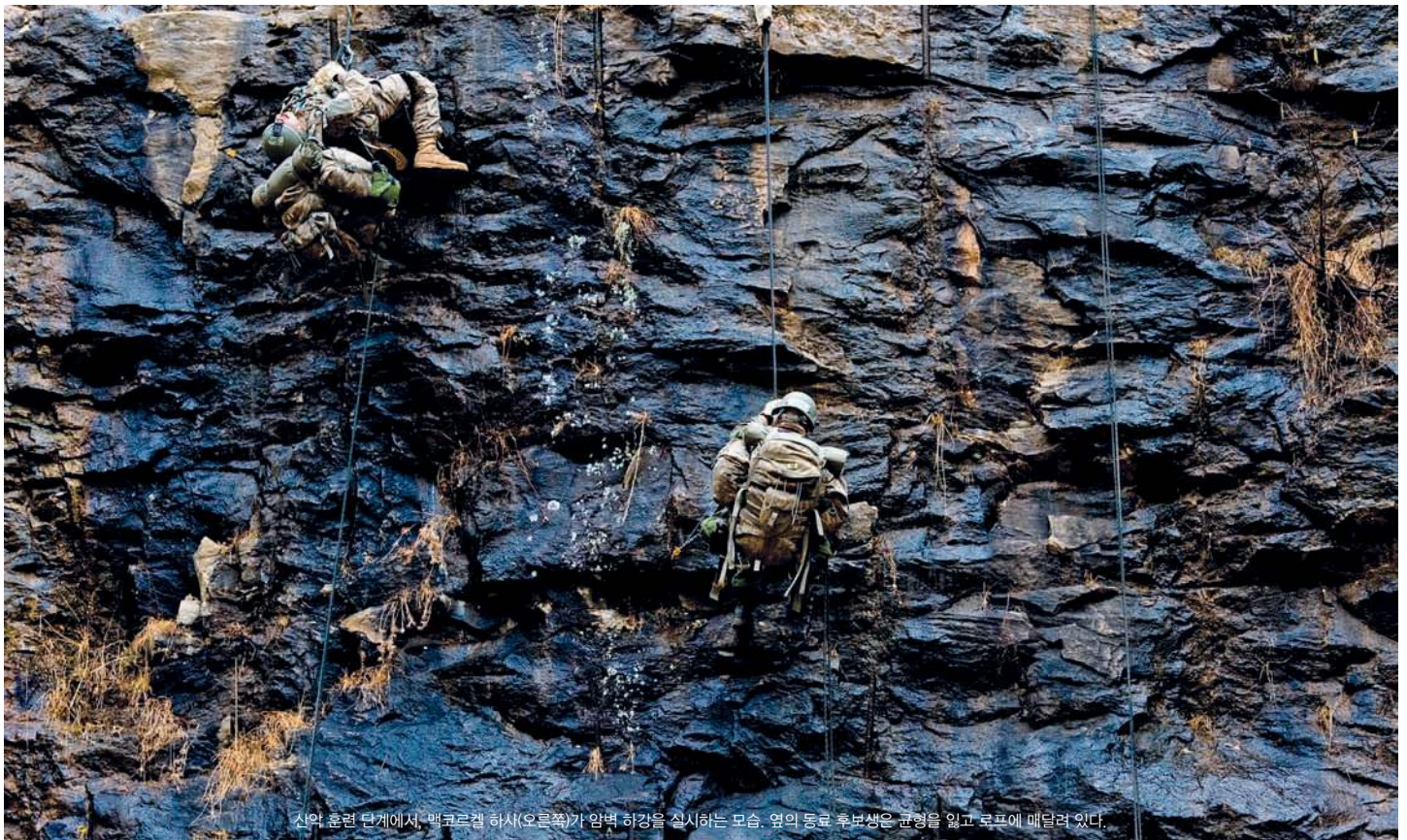
그렇지만, 첫 과정인 평가 단계를 마치고 나면, 더 많고 어려운 도전들이 후보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단계는 ‘산악등반’으로 후보생들은 북부 조지아 주의 험한 산악 지대에 위치한 작은 캠프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본 산악훈련 및 등반기술을 습득한다.

‘걷기’ 단계라고도 불리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후보생들은 로프 매듭짓기, 라펠(하강), 절벽 오르기 및 산악 지대에서의 정찰 임무를 배운다.

“저한테는 이 단계가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맥코르켈 하사가 회상했다. “쭈고, 축축한 느낌에,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음식과 취침시간이 허용되지 않고, 몸의 고단함과 싸우면서,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한계입니다.” 클라크 하사가 말한다. “이곳에서 육군 교리를 꼭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후보생들은 바로 여기,



산악 훈련 단계에서, 맥코르켈 하사(오른쪽)가 암벽 하강을 실시하는 모습. 옆의 동료 후보생은 균형을 잃고 로프에 매달려 있다.

자신의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산악 훈련 단계를 마친 후보생들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플로리다 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늪지대 훈련을 받는다. 후보생들은 늪지대, 정글과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기술과 전술이 이 단계에서 총동원된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라는 명령대신, 후보생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 두 단계에서 그들이 기어 다니고, 걷기 시작했다면, 이 단계는 ‘뛰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클라크 하사가 말했다. “이제 후보생들이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준 것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수중 훈련 및 공중 감습 작전 등을 수행하고, 후보생들은 임무를 위해 리드하고, 따르며,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도구를 주었으니, 가서 활용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맥코르켈 하사가 말했다.

이 시점에서 결국 모든 후보생들의 당락이 결정된다. 교관들은 각 후보생들을 평가해 효과적인 리더십 능력을 보인 후보생은 졸업시키고, 그렇지 못한 후보생들에게는 재훈련을 받게 하거나 혹은 귀가시킨다.

“이때 마음고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가 들기 때문이죠.” 맥코르켈 하사가 말한다. “그리고는 과연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하고 걱정하게 되죠.”

다행히 맥코르켈 하사는 그리 오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교관들은 그를 합격시켰으며, 그는 2011년 레인저 스쿨 제4기 클래스로 졸업을 하였다.

고단함과 배고픔 그리고 고통과 아픔. 이것이 바로 레인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가 공군인지, 병사인지, 간부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제 그는 어깨에 “레인저”라고 쓰인 작은 기장을 착용할 수 있는 엘리트 군인이다. 이러한 기장과 더불어, 그는 육군 동료로부터 진심어린 존경을 받게 됐다.

“레인저 스쿨에 입교하는 장병들은 대부분 임무상 필요에 의해 이곳을 거쳐 가지만, 공군의 경우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자원한 경우라 이는 더욱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클라크 하사가 말했다.

레인저 기장과 함께 뒤따르는 것은 또한 책임이다. 각 졸업생들은 레인저라는 이름에 걸맞게 높은 수준의 임무달성을 요구받는다.

“레인저는 리더입니다.” 킹 대령이 말했다. “이들 장병들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 동료 장병들을 독려하고 이끌 것입니다. 레인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권한과 경험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모두가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동료들까지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61일이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단함과, 배고픔 그리고 고통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엔 한 단어로 된 작은 기장이 새겨진다. 모든 이들의 존경을 자아내고,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한 사람의 군인정신을 의미하는 그 이름, 바로 ‘레인저’이다. **AF**



맥코르켈 하사가, 조지아 주 포트 베닝기지에서 로프를 타고 강을 건너는 훈련 모습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500여 대의 함상기를 보유한 제58기동부대가 배치되었다.

세계주요항공전사 ④

태평양 전쟁 최대의 해상 공중전

마리아나 항공전(마리아나 칠면조 사냥)

영국의 본토방공전과 함께 항공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전쟁이 바로 필리핀 해전이다. 적군과 아군 항공기들 1천여 대가 얽히며 치열하게 벌어진 이들간의 교전에서 2차대전 중 태평양 전선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해전으로서뿐만 아니라 항공전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마리아나 해전(필리핀 해전으로도 불림)'을 '마리아나 항공전'으로서 조명해본다.



일본군의 공세준비

1943년 9월 일본해군 참모부는 태평양 전쟁에서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미군이 와도전략(island hopping strategy)¹⁾으로 일본의 점령지를 차례로 공격을 가하자, 일본육군의 지상 항공병력의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항모 함대로 미 해군 전술기²⁾들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본영³⁾은 1944년 초 작전을 입안하여 미군의 다음 번 공세에 철저한 반격을 가하기로 했다.

신임 연합함대사령관인 도요타 소에무(豊田副武) 제독은 새로운 작전계획인 '아호(あほ)' 작전을 1944년 5월에 수립하여 실행에 나섰다. 아호 작전은 연합함대 해상부대와 기지 항공부대가 협공하여 미국의 기동 함대를 격멸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한 주력부대로는 오자와 지사부로(小澤治三郎)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제3함대 제1기동함대가 배치되어, 대형 항공모함 5척과 소형 항공모함 4척, 전함 5척, 그리고 순양함, 구축함, 지원함 등으로 구성되었다.

1944년 6월 12일,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마리아나 군도에 대하여 공습을 실시하자 도요타 제독은 미군이 다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미군의 마리아나 공세는 일본으로서는 의외였다. 대본영은 미군이 캐롤라인 제도나 펠렐리우 군도 등 남부지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빛나간 예측 때문에 마리아나 군도에는 전술기가 겨우 50여 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

6월 13일, 미군은 사이판 침공을 위한 폭격임무를 실시했다. 이에 대항하여 도요타는 항공모함들로부터 요격기를 발진시켜 반격에 나섰다. 6월 16일, 항모 6대와 전함들로 구성된 기동함대 병력의 주력이 필리핀 해 서부에서 합류하여 17일까지 급유 및 보급을 마쳤다.

보수적인 방어전략

6월 15일, 미 해군 잠수함들은 일본군이 도착하고 있음을 탐지하였다. 보고를 받은 미 제5함대 사령관인 레이먼드 스프루언스(Raymond Spruance) 제독은 곧바로 결전이 벌어지리라 예측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마크 미셔(Marc Mitscher) 제독은 제58기동부대(이하 TF-58)를 이끌고 사이판으로 전진하여 일본군의 반격에 대비했다.

TF-58은 5개의 전투단(Task Group)으로 구성되었는데, 최전방에는 7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전함전투단인 TG-58.7이 배치되었다. 그 오른쪽에는 항공모함 3척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 TG-58.4가 배치되었다. 한편, 좌익으로는 각각 4대의 항모로 구성되는 3개의 항모전투단(TG-58.1/58.2/58.3)이 배치되었다. 이들을 지원하는 함정의 규모도 엄청나서 중순양함 8척, 경순양함 13척, 구축함 58척, 그리고 잠수함 28척이 배치되었다.

6월 18일 자정 직전,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체스터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은 스프루언스 제독에게 전문을 보내 TF-58의 남서남 방향 350마일 인근에 일본 함대의 기함이 있음을 알렸다. 적의 무선통신을 도청하여 위치를 파악한 것인데, 이는 일본 해군의 암호체계를 해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셔 중장은 TF-58이 서쪽으로 기동하면 오자와의 1기동함대와 야간에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TG-58.7 단장을 호출하여 이 전략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전함전투단장은 휘하의 전함들이 일본군보다 우세하지만 부대원들이 야간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국 미셔 중장은 야간동안 함상기⁴⁾가 발진 가능한 지점까지 최대한 서쪽으로 이동한 후, 여명에 모든 기체를 발진시키려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러나 스프루언스 제독은 이에 반대했다. 일본 측이 기만전술을 펼쳐 TF-58의 측면을 공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사이판에 상륙을 위해 포진하고 있는 상륙함대를 방어할 병력이 없어 함대가 괴멸될 수도 있었다. 결국 스프루언스는 TF-58을 서쪽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일본군은 이러한 기만전술을 종종 활용했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아호' 작전계획에는 기만부대를 통한 타격은 없었다.

제1차 항공부대의 공습

6월 19일 05:30, TF-58은 바람이 부는 북서쪽으로 진로를 돌려 함상기를 출격시키면서 초계비행을 시작했다. 일본군도 괌에 배치된 전술기 50대 가운데 일부를 출격시켜 미군 병력의 위치를 탐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05시 50분, 일본군의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가 TF-58을 발견했다. 위치를 보고한 제로전투기는 곧바로 미군 함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대공감시 임무를 담당한 구축함의 기관포 화에 격추되었다.

미군의 위치를 확인한 괌 주둔 일본군은 미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 해군 함선의 강력한 레이더는 일본군 편대의 위치를 미리 확인했고, F6F 헬캣 전투기 편대들이 항모 벨리우드에서 출격하여 의심항적을 쫓아갔다. 헬캣 편대가 도착할 때 즈음에도 일본군은 여전히 오로테 항공기지에서 이륙하고 있었다. 몇 분 후에 또 다른 레이더 항적이 나타났다. 북부의 다른 섬들로부터 증원 항공병력이 발진했던 것이다. 이로써 대규모 공중전이 시작되었다. 교전은 헬캣 전투기들이 항모로 소환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50여 대의 일본군 전투기 가운데 무려 35대가 격추되었다. 미군의 완벽한 승리였다.

TF-58이 헬캣 전투기를 소환한 것은 10시경 함대의 150마일 서쪽에서 레이더 항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본 1기동함대에서 발진한 공습 제1파로 병력은 모두 68대의 전술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TF-58은 보유한 모든

- 1) 일본군의 수비가 강화된 섬이나 진지는 우회하고 그 밖의 목표를 공격해서 그 진지를 전략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전략.
- 2) 전술기(Tactical Aircraft)는 지원임무가 아니라 직접적인 전투행위에 참가하는 항공기로, 이 글에서는 전투기, 폭격기, 뇌격기를 포함하는 통칭.
- 3) 대본영(大本營) : 전시나 사변 중 육군과 해군을 지배하여 두는 천황직속의 최고통수기관.
- 4) 함상기(艦上機, carrier-borne aircraft)는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이 탑재한 함상기는 전투기·뇌격기(雷撃機)·급강하 폭격기의 3기종(機種)이었다. 한편 항공모함을 제외한 각종 군함에 적재되는 군용항공기를 함재기(艦載機)라고 한다.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미군 전투기가 모두 이륙하여 편대를 구성했을 무렵에 일본군은 약 70마일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하지 않고 편대를 재정렬하기 위하여 선회비행을 시작했는데, 정렬이 끝나기까지 무려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바로 이 결정적인 10분 사이에 미 해군의 헬캣 전투기 편대(11대) 제1파가 도착하여 일본군 공습편대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시각은 10시 36분. 곧이어 미군의 헬캣 전투기 150여 대가 요격임무를 위하여 추가로 이륙했다. 이미 전력 면에서도 미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불과 몇 분간의 교전으로 일본군은 25대의 전술기가 격추된 반면 미군은 겨우 한 대만을 잃었을 뿐이다. 살아남은 일본군 전투기의 운명도 그리 좋지 못했다. 증원된 미군 전투기를 맞이하여 교전을 벌이면서 16대가 추가로 격추된 것이다.

공중전에서 살아남은 전술기들은 미 함대의 방공구축함들에게 공격을 감행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운 좋게도 폭격기 편대가 TG-58.7의 전함들에게까지 공격을 감행했다. 폭탄 1발이 전함 '사우스 다코다'에 직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전함은 건재했다. 오자와의 제1파 공격은 원래 목표했던 미군의 항모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일본군은 미군에 비해 전투기의 성능과 대수, 조종사 기량 등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게다가 일본군의 제로전투기는 1/3만이 정상적인 공중전을 펼칠 수 있었고, 나머지 기체는 60kg짜리 폭탄 2발을 장착하여 도그파이트⁹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일본군의 피해는 더욱 컸다. 10시 57분, 제1차 공중전이 종료되자 TF-58의 전투기들은 서둘러 항모로 귀환하여 재무장과 보급을 실시하고 적의 추가공격에 대비했다.

칠면조 사냥에 나서다.

11시 07분, 미 해군의 레이더가 또 다른 항적을 감지했다. 일본군 제2파는 이전보다 더욱 대규모의 공습으로, 전술기 107대로 구성되었다. 미 해군 전술기들은 60마일 앞에서 일본군 요격에 나섰다. 11시 39분, 양측의 공중전이 시작되었다. 107대의 적기 가운데 최소한 70대 이상이 함대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격추되었다. 이미 공중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치열한 교전에서 생존한 적기 가운데 6대가 방어선을 돌파, TG-58.2 소속의 항모 2척에 폭탄을 명중시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적기 6대 가운데 4대가 이 과정에서 격추된다. 뇌격기¹⁰들도 방어선을 돌파, 항모 '엔터프라이즈'에 어뢰를 발사했지만, 어뢰 한 발이 항모가 지나간 항적에서 폭발되었을 뿐이었다. 뇌격기 3대의 편대가 항모 '프린스턴'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들도 곧 격추되었다.

결국, 일본군의 공격 제2파는 발진한 기체 107대 가운데 97대가 격추되었다. 제1파보다 더욱 참혹한 결과였다. 그러나 제2파의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후속공격은 계속되었다. 13시, 47대로 구성된 일본군 공격부대 제3파가 북쪽으로부터 미군 함대로 접근해왔다. 이들은 TF-58에서 발진시킨 헬캣 전투기 40대에 의해 50마일 지점에서 요격되었다. 교전에서 7대의 일본군 기체가 격추되었다.

방어선을 돌파한 일부 기체가 '엔터프라이즈' 항모전투단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항모는 건재했다. 제3파는 이전의 공격부대와는 달리 치열한 공격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 덕분에 전투기 7대만을 잃고 나머지 40대는 자신들의 항모로 복귀했다.

한편, 일본군 공격부대 제4파는 11시부터 30분간 이륙했는데, 조종사들은 잘못된 위치정보를 전달받고 엉뚱한 곳에서 헤맸다. 결국 연료를 소진한 제4파는 재급유를 위하여 2개의 대열로 나뉘어 괄과 로타의 지상항공기지로 방향을 돌렸다. 이 중에서 로타로 향하던 편대들이 TG-58.2의 항모전단과 조우하였다. 18대의 일본군 전술기들은 미군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며 절반인 9대가 격추되었다. 교전을 회피한 급강하 폭격기 9대는 미군 항모 '와스프'와 '빙커힐'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 일본기 9대 가운데 8대가 이 과정에서 격추되었다.

한편, 제4파의 주력인 49대는 괄의 오로테 기지에 착륙을 시도했다. 바로 이 순간 미군의 헬캣 전투기 27대가 이들을 기습했다. 연료를 거의 소진한 일본군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못하고 일방적으로 격추당하였다. 49대 가운데 30대가 격추되었고, 격추되지 않은 기체들도 수리불능 상태로 파괴되었다. 오로테 기지 공격을 마치고 본선인 렉싱턴 항모로 귀환한 조종사는 이 교전을 두고 "칠면조 사냥" 같았다고 표현했다. 결국 이날 공중전은 훗날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Great Marianas Turkey Shoot)"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5시간에 걸친 4차례의 치열한 공중전에서 일본군은 221대의 전술기가 격추된 반면 미군의 손실은 29대에 불과했다.

미 기동함대의 역습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한 TF-58은 이제 반격에 나섰다. 밤새 동안 함대는 서쪽으로 진로를 돌려 오자와 함대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6월 20일 여명이 밝자 적 함대를 수색하기 위한 정찰편대가 이륙했다. 한편 전날 오자와 함대는 미 잠수함들의 기습공격으로 '쇼가쿠'와 '다이호' 항모 2척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 거기에서 이미 공중전을 통해 함대가 보유한 전술기의 절반 이상을 잃어, 작전이 가능한 전술기는 15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자와 함대는 괄이나 로타에 육군 항공대



의 전술기 수백 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월 21일을 목표로 재공격을 구상하고 있었다.

한편, 미군 정찰대는 15시 40분이 돼서야 겨우 일본 함대를 발견했다. 위치는 TF-58로부터 300마일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러나 정찰보고가 정확하지 않아 16:05에 정확한 확인보고가 입수되었다. 시간은 이미 늦어 황혼까지는 겨우 75분이 남았을 뿐이었지만, 미서 중장은 모든 전술기를 출격시켰다. 오늘날처럼 야시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당시의 상황에서 야간 출격은 매우 위험했다. 귀환 시에 항모를 찾지 못하거나 착륙 시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서 제독은 커다란 도박을 걸었다.

미군 전투기들의 공격이 시작된 시간은 18시 30분이었다. 오자와 함대는 밀려오는 미군기에 대항하여 겨우 수십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요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 규모는 모두 550여 대였다. 이들은 오자와 함대의 숨통을 끊을 기세로 치열한 공격을 계속했다. 미군기의 눈에 제일 처음에 띤 급유선 2척은 치열한 공격을 받아 해상에서 분해되었다. 항모 '히류'는 아벤저 뇌격기 편대의 폭격과 어뢰공격으로 급격한 폭발을 일으키며 결국 침몰했다. '즈이카쿠', '준요', '치요다' 등 3척의 항모들과 전함 '하루나'가 피해를 입었다. 치열한 교전이었지만 미군 전투기의 피해는 20대에 불과했다.

20시 45분, 미군기들이 TF-58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미서 제독은 항모들의 조명을 모두 켜고 상공으로 탐색등을 비추어 귀환하는 함상기들을 인도하고자 했다. 일본군의 야간폭격기나 잠수함의 기습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환하던 기체가운데 80여 대가 바다로 추락했다. 그날 밤 오자와 제독은 도요타 제독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았다. 미군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다음날부터 추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오자와 함대는 TF-58의 사정거리를 멀리 벗어나 있었다. 치열했던 필리핀 해전은 이렇게 끝났다.

괴멸된 일본의 해군항공대

일본은 전투 1일차인 19일, 4차례의 공습에 전술기 373대를 발진시켰는데, 이 중에 243대가 귀환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군 잠수함의 기습공격으로 항모 2척이 침몰하면서 많은 전투기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다로 가라앉았다. 2일차로 전투가 끝난 후의 결산결과는 더욱 처절하다. 오자와 함대는 항모 3척을 잃고 433대의 항공모함 탑재기가 손실되었으며, 일본 육군 항공대의 전술기도 200여 대가 격추되었다. 반면 첫날 미군의 손실은 23대에 불과했다. 둘째 날은 100대가 귀환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은 야간임무수행 후 귀환 시에 발생한 사고였다.

특히, 오자와 함대는 전투 이전에 전술기 47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 후에 비행이 가능한 기체는 겨우 35대뿐이었다. 기체의 손실도 컸지만, 실전을 경험한 소중한 베테랑 조종사들의 죽음은 최악의 손실이었다. 이렇게 해군항공전력을 소진한 일본해군은 더 이상 전술기와 조종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이후 레이테 만 전투에서 일본은 항공모함을 유인용 목표물로 이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베테랑 조종사들을 전투에서 소모한 일본 측과 달리 미국은 실전경험을 갖춘 조종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하여 새로운 조종사들을 양성했다. 그 결과 마리아나 공중전에서 미군 조종사들은 2년 이상 훈련과 실전으로 충분히 준비된 반면, 일본 측은 불과 3개월의 훈련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증명되었다. **AF**

1. 일본군의 접근을 알았지만 TF-58은 상륙함대를 호위하기 위해 이동을 자제했다.
2. 일본 함대를 요격하기 위해 F6F 헬캣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고 있다.
3.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미리 감지한 미군은 기습부대를 오히려 기습할 수 있었다.
4. 미군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첫날 교전에서 2백 대 이상을 격추시켰다.
5. 일본군은 치열하게 공격을 감행했지만 유효한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6. 다음날 미군은 550여 대의 전술기를 투입하며 일본 함대에 대하여 일제 공격을 나섰다.
7. 미군의 폭격으로 대파되어 침몰하고 있는 일본해군 항모의 모습

- 5) 도그파이트(Dog Fight)란 전투기 사이의 공중전을 의미한다.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서로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개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 6) 뇌격기(Torpedo Bomber, 雷撃機)란 폭탄 대신 어뢰로 함선을 공격하는 해군 공격기를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여러 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각국 해군의 전통적인 '거함거포주의(巨艦巨砲主義)' 사상을 없애는 구심점이 되었다.

LEADERSHIP

걱정이 없는 삶



얼마 전 LA로 가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CEO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살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걱정이 하나도 없고, 좋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의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관심의 원’에 속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 세상에는 관심과 무관심의 사건들이 있으며, 한국의 날씨, 물가, 정치 등은 우리의 관심사지만 외국의 그것들은 대부분이 무관심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은 ‘관심의 원’에 속하고, 그 중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영향력의 원’에 속한다고 설명해주었다. 즉, 자기 동네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린 것은 분명히 ‘관심의 원’에 속하는 사건들이다. 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속한 행동은 우산을 준비하고, 폭설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예를 들면, 국내의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관심의 원’에 속하며, ‘영향력의 원’에 속하는 행동은 자가용을 덜 사용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한다.

그는 회사 중역회의가 시간만 길고 결정되는 것이 별로 없는 이유는 몇몇 입담 좋은 중역들이 주로 ‘관심의 원’에 속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외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좀 더 좋아했으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쟁사가 신제품을 좀 더 늦게 출시했다면... 이와 같이 ‘관심의 원’에 속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결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일, 회의 참가자들이 ‘영향력의 원’에 속하는 얘기들만 한다면, 회의는 대단히 효과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도 ‘관심의 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였다. 나는 그에게 세상사의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속하는 사건들이고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걱정거리, 즉 ‘관심의 원’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들의 걱정거리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임을 설명해주면서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석지영 스님의 법문 이야기를 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든다.
남보다 강하고, 이기고, 크게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고통을 만든다.’**

그는 고통을 스스로가 만들어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과거에는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과거의 좋은 친구들이 자기가 너무 바쁘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하나, 둘 떠나버렸고, 그때마다 그들을 원망만 했다는 것이다.

친구가 떠나는 것은 ‘관심의 원’이지만 자신이 반성해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향력의 원’이다. 나는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라는 격언을 인용, 비슷한 내용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격언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좋은 친구가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본인이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자.”라는 명구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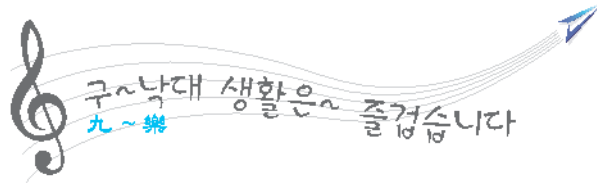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무렵, 그는 너무나 좋은 개념을 배웠다고 기뻐하면서 귀국하는 즉시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의 정신을 확 바꾸어 놓겠다고 했다. 나는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기 전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는 말을 꺼낼까 생각하다가 참았다. 잡시의 대화로 그가 변한다면 기적이고, 나의 이야기에 감동한 그가 리더십교육이나 코칭을 받았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괜한 고민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고민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을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 **AF**

공군 IN

공군군악대 60들의 작은 이야기
다른 나라의 '공군' 군악대 소개
공군군악대 60주년을 축하하며
전 · 현직 군악대원들의
'뚝' 소리 나는 군악대 이야기
* 기획특집

2011 공군항공우주캠프
* Photo Sketch
* 포토프레임@AF
* AIR FORCE MONTHLY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줄게
* 생각하는 그림



공군군악대 60돌의 작은 이야기

#1 공군군악대의 창설

1950

공군군악대, 오션지 활주로 위에 힘차게 날아오른다. | 1951. 10. 17.

공군군악대의 역동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창설이야기는 험난했던 6·25전쟁의 초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시, 육군 3사단 군악대장으로 있던 정호상 소령은 1951년 6월 14일 공군대위로 전군,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배속된다. 당시 공군본부 정훈감실은 각계각층의 민간 예술인들로 구성된 음악대, 연예대, 미술대 등을 포괄한 외곽단체를 정훈감실에 편성하여 심리전 전개와 장병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었다.

당시 육군과 해군에는 군악대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공군에는 군악대가 없던 터라 정호상 대위는 공군에 군악대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이때 정호상 대위를 따라 같이 온 사람으로 김석호 이등중사(지금의 병장)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군군악대 조직의 모체가 된다.

군악대원들을 모집한 사건은 더욱더 드라마틱(?)하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더구나 관악을 경험했던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서 이들은 우선 육군군악학교와 3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원을 데려왔다. 파트별 1명씩 데려왔는데, 색소폰의 김경오, 김재득, 트럼본의 강명욱, 트럼펫의 곽이색 등 4명이었다. 이어 이들은 민간인 이현종(베이스), 강중후(유포니움)를 입대시키고, 인천시경악대 소속의 이은욱(색소폰), 김주면(유포니움, 색소폰), 정수훈, 오수동, 정서봉 등을 데려왔다. 이들은 지리산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전투부대원이기도 했다. 또한 육군합창단원이었던 이세혁, 김화용 등도 합세시켜 이들로 하여금 관악교칙본 제작과 악보사보 정리를 하게 했다. 이때 훗날 후라이보이로 전국에 명성을 떨친 광규석을 논산훈련소에서 데려오는데, 이로 인해 내무부 등 각 부처에서 항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공군에 입대절차를 마친 뒤라, 결국에는 잘 무마되었다.

이렇게 해서 공군군악대는 50여 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다. 전쟁 중이라 비공식적으로 입대시킨 사람도 있었고, 육군, 해군에 있던 현역들도 데려오고, 심지어 제대한 사람들도 다시 공군에 입대시켰다. 그러다 보니 초기 공군군악대는 학교선배가 후임이 되고, 사회의 촌수가 뒤집어지는 웃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당시 군악대원들의 모습

#2 군악대 행사 및 연주와 교향악단 창단

군악대의 첫 출동 | 1952. 3. 1.

군악대에서는 행사를 "출동"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군악대의 첫 '출동'은 1952년 3월 1일, 대구 서부초등학교에서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공군군악대는 군내는 물론 군·관·민 지원을 위해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음악적으로는 매년 정기연주회, 지방순회연주 등으로 군악활동을 전국으로 넓혔다.

이 시대는 6·25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다시피한 시기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때라 음악은 일종

의 사치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군악' 만큼은 그래도 활발하였다. 본래 군악의 의미는 군의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제도, 계몽활동 등의 역할이 군악대에 적극적으로 요구된 시기라 군악을 통한 대민지원 은 군악대의 당연한 의무였다. 당시 연주했던 곡은 행진곡, 서곡, 가요 등이었는데,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 과 구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곡 선정에 있어 군악뿐만이 아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려 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당시 군악행사는 연간 약 500여 회에 달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수 치는 196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국가행사를 비롯해 공군내부의 행사, 사회단체지원행사, 정기적인 학교 순회 연주, 관혼상제의식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사에 참가했었기 때문이다.

연주대 구성

초창기 공군군악대의 연주대는 군악행사대, 교향악단, 스윙밴드, 실내악단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교향악단의 현 악부문은 음대를 졸업한 현악전공병사가, 목·금관·타악기 부문은 실력 있는 대원들이 이를 담당했다. 양쪽을 넘나드는 대원은 참 바빴다. 스윙밴드 역시 보통 2~3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 또한 실력순으로 대원들을 선발 했다. 여러 연주대에 소속된 군악대원들은 행사에, 연습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Swing Band(경음악단) 창단 | 1952.

1930년대, 이 용어가 처음 쓰였을 때는 '재즈'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통용됐다. 스윙밴드라는 용어가 처음 정착 된 것은 'King of Swing'이라 불렀던 유명 재즈니스트 베니 굿맨(Benny Goodman)이 자기 악단을 <스윙밴드> 로 명한 것부터 유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윙밴드가 민간단체에서보다 군악대에 의해 먼저 생겼다. 공군군악대는 스윙밴드가 후라 이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조직되었는데, 당시 사회를 맡았던 '곽규석'은 후라이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인 기를 끌었다.

군악대 초창기에는 스윙밴드가 전국 순회연주, 초청연주 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다. 이는 후라이보이 곽 규석의 유명한 사회가 큰 영향을 끼쳤다. 곽규석의 전역 후, '후라이보이' 스윙밴드는 '에어포스' 스윙밴드로 개 명, 연주활동을 이어갔다.

스윙밴드의 주 활동무대는 사회단체, 군내의 연회, 미8군의 부대지원 등이었고, 정기연주회 시 1부는 군악 연주, 2부는 스윙밴드 연주로 공연했다.

교향악단 창단 | 1958. 2.

공군 교향악단은 당시 군악대장이었던 현종건 소령의 주도로 1958년 2월 창안됐다. 현악파트는 당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자나 재학생으로, 목·금관, 타악기는 현역 군악대원으로 구성했다. 바이올린 백운창, 김동선을 비 롯해 15~16명, 비올라 장광렬 등 5명, 첼로 윤양석, 베이스 김동선 등 60여 명이 원년멤버였다. 이는 3군 중에 유일한 교향악단이었다. 공군군악대 교향악단의 실력은 당시 대한민국의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었던 서울시립교 향악단, KBS교향악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창단연주는 현재명 작곡의 오페라 "춘향전"이었다. 창단 5개월 만인 1958년 7월의 일이었다. 이서구 씨가 대사를 쓴 이 곡은 명동에 있는 시공관에서 공연됐다. 주최는 서울오페라단이었고 합창단은 서울대학교 합창단이 맡았다. 주목할 점으로는 조연의 방자 역에 후라이보이로 유명한 곽규석 씨가 등장했다. 흥행도 대성공이어서, 당 시 이승만 대통령은 기녀수절 춘향독보(妓女守節 春香獨步)라는 휘호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정기연주회, 초청연 주회, 장병위안연주회 등으로 연주활동범위를 넓혀갔다.

실내악단(Chamber) 창단 | 1958. 2.

실내악단은 대체로 현악기로 이뤄진다. 간혹 곡에 따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등 목관악기도 편성되는데, 보통 20여 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1대 공군 실내악단은 바이올린의 백운창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주요 멤버는 공 군병 53~57기였는데, 주로 서울대 출신들이었다. 공군군악대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 주로 장군연회 및 미8군



필자 본인



장병위문공연. 후라이보이(Fly Boy) 밴드와 사회자 곽규석 (공군본부강당, 일자미상)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연주, 명동 시공관에서(1960. 7. 7), 지휘 현종건, 클라리넷 노덕일, 첼로 안명석



공군 교향악단의 연주 모습

1960

특별연회의 고정게스트였다고 한다. 백운창 중심 기수가 제대하고 제2대로 이어지는데 이때 중심 멤버는 바이올린의 채한석, 첼로의 조성열, 비올라의 송석우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공군군악대는 그야말로 못하는 음악이 없고, 60년대 한국의 군 음악을 선도함은 물론 한국사회 음악도 이끌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인기몰이 | 1962. 7.

1962년 7월, 제주도민을 위한 공군군악대의 공연이 있었다. C-46 수송기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공군군악대는 시가행진과 제주 탐동공원 연주회를 가졌다. 당시, 공군군악대는 제주도민, 특히 관악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공군군악대에는 제주 출신 군악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군병 53기 이차석, 양은석, 고창현, 61기 고년표, 박창표, 신종대, 이영일, 84기 강치호, 153기 강희남(훗날 아들도 군악대원임), 162기 문무경이 바로 그들이다.

제주관악은 6·25전쟁 중 한국 고아원의 원아 4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한 것이 그 시초다. 전쟁 중이라 모든 음악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 고아원을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방문해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소녀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했다. 당시 열 살이 채 안 됐던 이 소녀의 이름은 유인자. 국립자료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이 사진을 2011년 수소문 끝에 찾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유인자 어린이

KBS 국군위문열차 방송

1960년대 초, KBS 라디오에서 군(軍)을 대상으로 편성된 “국군위문열차” 프로그램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었을 때라서, KBS의 위문열차 프로그램은 군인들에게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퀴즈게임’으로 4군(공·육·해·해병대)의 각 단위 부대에서 2명씩 퀴즈게임에 출전, 부대자랑과 함께 퀴즈를 푸는 인기프로였다. 이 프로에 106전대(당시 공군군악대가 소속된 부대) 대표로 필자와 서울대 출신 군악병이었던 주경환이 출전, 주장원, 월창원, 기장원을 했다. 상금도 타고, 공군군악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 민간 음악단체 창단을 위한 연주지원

당시, 공군군악대는 여러 민간 음악단체 창단에 많은 연주지원을 했었다. 군인신분으로 민간 음악단체를 지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공군본부에서 민·군 친선 및 공공홍보를 위해 군악대의 민간단체 연주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군악대원들이 민간 음악단체에 연주지원을 할 수 있었다.

아마추어 교향악단 연주지원

군악대 구성원 대다수가 음대 출신이었던 까닭에 공군군악대는 아마추어 교향악단 연주회를 여러모로 지원했다. 1960년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아마추어 학생 교향악단이 있었는데, 공군군악대는 이 악단의 연주회에 정기적으로 연주를 지원했다. 그 외에도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등 서울소재 음악대학에 꾸준히 연주를 지원해, 군악대원 모병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인천교향악단 연주지원

1966년, 전 군악대원 정수훈이 주축이 되어 인천교향악단이 창단된다. 그러나 경험 있는 연주자들이 부족해 외부 연주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정수훈 씨는 현역 군악대원이었던 이은옥 상사에게 지원을 요청, 필자를 비롯해 인천출신 박영걸(병 157기) 등 군악대원 10명이 인천교향악단을 지원하게 된다. 이후 3~4년 여를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기틀이 돼 오늘날 인천시립교향악단으로 발전한다.



“삼천만의 합창”, 고려대 교정에서 지휘 현중건, 노래 권해경, 베이스 클라리넷 노덕일, 바이올린 강성수, 채한석 등

광주교향악단 연주지원

1960년대 중반, 공군군악대 출신 이용일(병 67기)이 주축이 되어 광주교향악단이 창단된다. 이곳 역시, 단원이 부족하여 공군군악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초기에는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거절했지만, 나중에 이용일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시발이 되었다.

한국교향악단 연주지원

1962년, KBS방송관현악단 부지휘자였던 이남수 씨가 한국교향악단을 창단했다. 필자는 이 악단의 창단멤버였다. 창단 첫 연주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백건우(훗날 영화배우 윤정희와 결혼) 학생의 피아노 협연이 있었다. 유학을 앞둔 기념 연주였다. 곡목은 아마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으로 기억한다. 한동일 이후, 피아노의 천재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었다. 하지만 이 교향악단은 이후 3~4회의 정규연주회를 끝으로 자생(自生)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해산하고 만다.

#4 당시 공군군악대 주요 행사지원

군악대의 본 임무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이다. 그러나 이런 임무 외에도 국가의 주요 행사 때마다 연주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임무가 있다.

현충일과 국군의 날, 외국 국가원수 등 귀빈 환송·환영과 같은 국가의 주요행사에 군악지원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 외에도 1년 동안 공군군악대의 음악을 총결산하는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군악대원들은 그 어느 행사 못지않게 정기음악회에 공을 들인다. 2010년까지 공군군악대는 총 60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라 볼 수 있다.

외국원수 환송·환영 행사

195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라시에 황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60년대 서독의 루부케 대통령, 태국의 키치카롱 국왕, 미국의 존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등 국가원수들이 방한했을 때, 공군군악대가 행사를 지원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연주가 치러졌던 기억이 난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군악대원들은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부대 위문공연

후라이보이 스윙밴드가 에어포스 스윙밴드로 이름을 바꾼 후, 전국 각 부대에 위문공연이 많았다. 이때 스윙밴드는 현악까지 포함된 풀 스윙밴드(Full Swing Band)였다. 연주구성은 6개의 바이올린, 4개의 첼로, 5개의 색소폰, 6개의 브라스, 5가지의 리듬악기(피아노, 세트 드럼, 스트링베이스,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였다. 이때 지휘는 현종건 소령이 했고, 단골초청가수는 권해정, 방인숙, 현미 등이었다. 종종 성악가들도 함께 공연했다. 특히, 광복절과 국군의 날에는 경희루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연회에 공군교향악단과 에어포스 스윙밴드가 연주를 지원했다.



서울 국제 음악제, 지휘 안익태



안익태 선생님과 공군군악대(서울운동장, 1962.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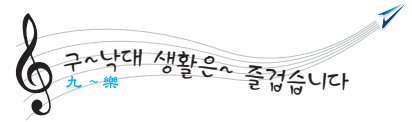
태국 타놈 수상 국립묘지 참배(1967. 4. 1.)
지휘 최문호 대위, 필자는 드럼메이저로 참여했다.



1965년 블루노트 스윙밴드 시절,
경희루 연회장에서 연주 중, 영부인 윤영수 여사의 격려를 받고 있다.

#5 맺음말

벌써 60년이 지났다. 돌아보니 장구한 세월이었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이 세월 동안 공군군악대를 거쳐 간 사람은 2,000여 명에 달한다. 인생의 황금기에 군악을 통해 인생을 배운 군악대원들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준 공군에게 공군군악대를 거쳐간 모든 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 이 지면을 빌어 후배 군악대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대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라고. 그 행복이 영원하려면 군악이 준 인연을 아름답게 이어가라고. 옛 군악인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군악대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이만 줄인다. **AF**



다른 나라의 '공군' 군악대 소개

이번 기획은 대한민국 공군군악대의 역사에 이어, 다른 나라의 '공군' 군악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창설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군악대가 세계 속의 공군군악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나라의 '공군' 군악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군악대(United States Air Force Band)

미 공군군악대의 임무는 미 영공을 방위하는 공군의 목적에 따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동 및 감성을 복돋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 공군군악대는 '미국의 국제적인 사절단'이라는 그들의 좌우명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음악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구합니다.

미 공군군악대의 특성을 한 가지 꼽는다면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록밴드 및 행사음악 등 광범위한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군악대가 갖고 있는 장점과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Operation Group'이라 해서 예산, 행정, 홍보, 마케팅, 행사기획, 음향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 공군군악대의 한 가지 특이사항을 꼽자면, 여성들로만 이뤄진 군악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 공군여성군악대(WAF : Women in the Air Force Band)라고 해서 1951년 1월에 조직된 군악대가 있었죠. 하지만 상부의 지시사항을 자주 어기는 문제가 생겨 1961년 해체하고 맙니다.

참고로, 흔히 미 공군군악대를 'Tops in blue'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Tops in blue'는 미 공군문선단을 뜻합니다.



United States



**영국 공군군악대
(Central Band of the Royal Air Force)**

1920년 창설된 영국 공군군악대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군악대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명성에 걸맞게,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죠. 영국 공군군악대는 BBC 라디오에서 방송을 탄 최초의 군악밴드이며, 창설 이후 오늘날까지 빅밴드 스타일의 음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들은 LP레코드를 만든 첫 군악대이기도 합니다.

영국 공군군악대가 1960년 발표한 'Salute To Heroes'는 군악임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60,000장 이상 팔렸으며, 영국음반차트(UK Albums Char)에서 실버디스크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빌보드차트나 일본의 오리콘차트에 군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순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그들이 발표한 'Heroes of the Air'와 'Salute to the Royal Air Force'라는 노래는 우리나라의 '빨간마후라'처럼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Central Band of the Royal

**뉴질랜드 공군군악대
(Royal New Zealand Air Force Band)**

뉴질랜드 공군군악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꼽으라면, '군악대'가 비상설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뉴질랜드 공군에서 필요한 연주 및 콘서트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군악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구성은 프리랜서 음악가 혹은 클래식이나 재즈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뉴질랜드 공군군악대가 실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뉴질랜드 공군군악대원들의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서 뉴질랜드 교향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및 벡터 웰링턴 교향악단(Vector Wellington Orchestra), 정상급 재즈연주자 및 유명밴드들과 합주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뉴질랜드의 모든 공군군악대원들은 연습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공군군악대는 군악행사뿐만이 아니라, 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연 연주 및 자선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는 군악대로도 유명합니다.

New Zealand



**호주 공군군악대
(Royal Australian Air Force Band)**

호주 공군군악대의 역사는 1923년 빅토리아의 Point Cook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호주 공군군악대의 주 임무는 음악과 행사를 통해 공군의 문화와 인지도를 대중들에게 널리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대관식, 왕실순회공연(Royal Tour), 국가의 주요행사 등입니다.

호주 공군군악대의 명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의 공식 군악대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호주 공군군악대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을 대표하는 군악대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Royal Australian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축하하소서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비역 공군군악대원들과 타 군 군악대에서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병우
육군군악대장, 중령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자랑인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 군악대가 같은 건물을 사용해서 그런지, 공군군악대는 우리의 형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설 60주년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공군군악대가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취한 적도 많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 맺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박준형
해군군악대장, 소령

조국의 하늘을 음악으로 수호하는 '대한민국 공군군악대'가 창설 6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은 '군악'의 길을 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 일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공군군악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진원
공군군악동우회장 및
한주테크 대표, 병 187기

공군군악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창설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비역 군악대원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60주년을 맞은 것처럼, 금방 100주년도 다가오겠지요. 앞으로도 영원할 공군군악대여, 무궁히 번창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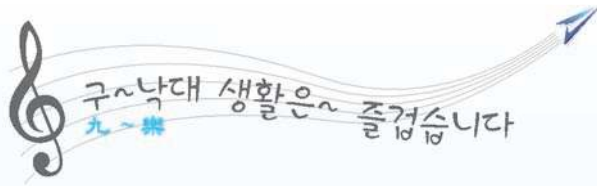
김동수
성신여대 음악대학 교수
병 358기

어릴 적 고향집 같이 평소 그리워했던 공군군악대가 벌써 창설 60주년을 맞았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공군군악대가 더욱 발전하고, 최고의 군악대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현빈
가수, 병 573기

지금의 저, 박현빈을 만든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공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입대 전 성악을 전공해, 공군본부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때 공군군악대에서 성악이 아닌, 트로트를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제대와 함께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군군악대는 제 인생의 길을 정해준 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공군군악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 현직 군악대원들의 '뚝' 소리 나는 **군악대** 이야기



1951년 10월 17일, 대구의 한 작은 막사에서 창설된 공군군악대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미했지만, 대한민국 군악대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는 희망을 품고 달려온 공군군악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전 · 현직 군악대원들의 대담을 기획해보았습니다. 마치, 공군군악대의 미래를 연주하기 위한 새 악보를 그리는 것처럼.

대담참석자

김대중 (주) 해피뉴이어 대표, 작곡가, 병 343기

백남길 (주) 코스모스악기 이사, 병 351기

박재경 대위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악대장

김태관 준위 계룡대근무지원단 군악의장대대 행사계획 담당

피지혜 하사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악대원

군악대 창설 60주년의 의의에 대해



박재경

공군군악대가 벌써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還甲)을 맞이한 셈입니다. 육십갑자를 새로이 시작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공군군악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분들이 오늘 모처럼 함께 해 주셨는데,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지만, 공군군악대의 현재를 진지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처방을 강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관

우선 현역 군악대원으로서 맞이하는 군악대 창설 60주년, 정말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악대에 근무한 지가 올해로 30년이 되었으니, 딱 절반을 같이했네요. 선배님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군악대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군악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는데, 각자 자신의 눈높이에서 허심탄회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군악대가 다시 한 번 새롭게 변모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 뭔가 이야기하기가 민망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선배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군악대 창설 60주년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60주년이 지났는데도 '한결 같은' 공군군악대가 존경스러워요. 여기서 '한결 같은'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대원들의 군악대에 대한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죠. 솔직히 제가 복무했던 예전의 군악대와 지금의 군악대가 크게 달라진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는 공군군악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무했을 당시에는 공군군악대가 최고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공군군악대는 타군이나 경찰군악대에 비해 다소 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만했던 것도 있고, 다른 군악대가 발전한 것도 있고. 옛날처럼 그저 행사만 하는 군악대가 아니라, 공군의 대표하는 브랜드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군악대 모병이 힘들다고 들어요. 경찰군악대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건물도 좋고, 자주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이점이 있어 음악도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정한 필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학을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더군요. '필로'의 뜻은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결국,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군악대는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점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 때만 해도 군악대가 3개 있었어요. 행사 때면 3개의 군악대가 합쳐져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병들도 서로를 다 알았구요. 그런데 지

금은 5개의 군악대가 운영되다보니 예전 같은 하모니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들의 필하모니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거죠. 너는 작사 군악대, 나는 공사 군악대...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부대라는거죠. 우리 공군군악대가 아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내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적해 주신 점, 현역으로서 우선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악대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군악대가(歌)'를 부르면 그냥 상황이 끝났거든요. '구~낙대 생활은~ 즐겁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 분위기도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더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군악대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군악대장님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분야도 마찬가지로요.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합치느냐. 그 해결법이 결국 '찾은 미팅'이에요. 서로 의견이 틀리거든요. 서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혹자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어설피게 아는 것은 차라리 적만 못하다고. 적이면 안 보면 되는데, 잘 아는 것 같은데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행사가 많아 바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군악대장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때 그때 업무에 치여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선배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왔다고 할까요. 앞으로 70년, 80년, 10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발전전략이 필요하죠. 경찰군악대가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 답은 '차별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하자, 건물도 최고로 갖추고 군대에는 없는 우리만의 장점을 개발하자". 저는 그 방법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낙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김대중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래에 대한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콜라의 양대 산맥이라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콜라라는 것이 처음 맛이 들리면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코카콜라가 전 세계 콜라 시장점유율 70%, 펩시가 20%, 나머지가 환타였지요. 그래서 펩시는 '지금 코카콜라에 입맛이 든 사람들을 펩시콜라로 끌어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펩시맨이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10년 후에 코카콜라를 상당부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군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잘 안 들죠. 그래서 군가를 현대적으로 작곡해서 보급하고.. 그러면서 잊게 되는 군가들이 점점 생기고... 차라리 그 비용에서 한 10%만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공군에 관련된 동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공군을 좀 더 친숙히 여기게끔 하자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즘 다문화가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란머리에 미국적으로 생긴 아이가 공군 제복을 입고 공군에 입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는데, 공군군가를 외국어로도 만들어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빨간마후라는 필리핀에서 많이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간마후라를 필리핀어로 부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군'이야말로 사회의 변화보다도 기민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김태관

시대가 변화할수록 군악대에 요구하는 것도 많아졌고, 청중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해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군악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의 '기획조정실'이나 '종합전략실' 처럼.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모병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은 타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군악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보다 전문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백남길

깊이 공감합니다. 혹시 군악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모병 계획이 있습니까?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음대의 70~80%가 여자인 점을 감안해, 여군들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혜

공군군악대에 여군들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의 경우, 매 기수 모집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집인원은 적고, 장기복무자로 선발되기도 쉽지 않고. 타 병과의 여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공군군악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여군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경

모병을 위해 고등학교에 가서 연주를 할 때가 있는데 가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군에도 군악대가 있나요?"라고 물어올 때입니다. 군악대하면 으레 육군을 생각합니다. 그나마 영화배우 조인성 씨가 공군군악대에서 복무했던 것이 공군군악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군악대가 60년 동안 홍보한 것보다 조인성 씨가 복무한 기간의 홍보성고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군악대 모병의 직접적인 대상인 음악도들을 목표로 삼아 홍보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군군악대'를 생각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리트가 없어요. 육군은 복무기간이 짧아요. 해군은 배를 타고 세계를 돕니다. 공군은 솔직히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백남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연주를 했다고 해서 '한 번 연주해 줬으니, 우리를 알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상품 하나를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1~2년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군은 순회연주회 한 번씩 하고 기다립니다. 큰 오산이지요. 공군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연주할 때 타군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 역시 우리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정말 모병에 힘 쓰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연간 계획표를 세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악연주회 한번을 하더라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해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요. 단순히 우리의 공연을 암전히 들어주길 바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씨,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군악대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



김대중

그런 의미에서 모병도 문제지만, 얼마전 공군군악대의 악보보관 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악보가 만들어졌는데 온전히 존안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설 60주년을 맞아 악보들을 디지털 화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군에서 유리하도록 '싸움의 장'을 바꿔야 합니다. 음악은 꼭 나팔만 불어야 할까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면 원소스 못지않게 훌륭하게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향과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만 있어도, 군악대 수준의 연주를 만들 수 있죠. 물론 주된 멜로디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악대 인원이 부족해 소리가 빈다면, 컴퓨터로 이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공군은 라이브와 미디를 겸한 사운드를 훌륭하게 낼 수 있는 군악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군군악대가 계속해서 모병이 어렵다면, 차라리 다른 군과 차별성을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재경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에 군악대가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특색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신 트렌드도 10년 뒤에는 시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군악대의 특성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김대중

전 공군군악대가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각 군악대마다 특색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은 공군본부가 담당하고, 스윙밴드는 오산, 이런 식입니다.



백남길

공군군악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장병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이 주된 이유였다면, 요즘에는 민간인들에게 공군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공군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군악대는 공군의 문화를 전파하는 사절단이에요.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대죠. 군인이라는 거부감도 덜하고요. 그래서 군악대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정책적인 영역에서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를 해외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군악대가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음악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군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좋은 세일즈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군군악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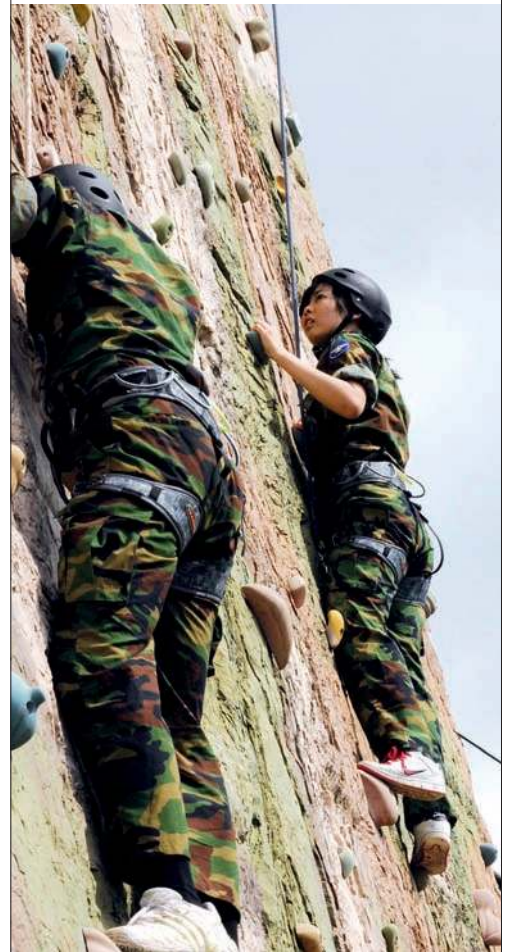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처럼 군악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AF**



공군과 함께 키우는 하늘과 우주로 향한 꿈! 2011 공군항공우주캠프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명품' 캠프

대한민국 공군과 한국항공소년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2011 공군항공우주캠프'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항공우주캠프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웅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국가안보와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마련된 캠프입니다. 항공우주캠프에 참가한 한국항공소년단과 국제항공소년단원들의 3박 4일간의 일정을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 패스트로프를 이용한 레펠훈련





▲ 인공암벽등반 중



▲ 심폐소생술 훈련



▲ 스쿠버다이빙 체험



▲ 수중 생활훈련!



▲ Hi-Taxing



'11-2차 고등비행수료식

참모총장은 8월 11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 고등비행수료식을 주관하고 신임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유난히 하늘을 동경하던 여러분들은 이제야 비로소 선배 조종사들과 함께 비행임무 최일선에서 조국의 하늘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드높은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조종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항재전장의 각오로 무장된 진정한 전투프로그가 되고, 조종사가 겸비해야 할 필수덕목 중 하나인 팀워크 중심의 임무수행, 그리고 공군의 핵심리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 계발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료식 후, 참모총장은 전투형 군대육성 현장지도 차원에서 임무일선을 돌아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 특강

참모총장은 8월 10일, 공군본부 하늘사랑 아카데미 강사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초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 등의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렴이 선진국이 되는 국가경쟁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렴이 미래를 건설하는 우리의 자원이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공군본부 주임원사 이·취임식

참모총장은 8월 2일, 공군본부 주임원사 이·취임식을 주관하며 이임 김재환 원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취임하는 배해도 공군 주임원사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부사관 여러분들은 중견간부로서 누구보다도 해당 부대와 장병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업무지식과 첨단기술을 구비한 전문가들로 그 위상 또한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병영문화 혁신의 창조자'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밝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창출하는 일에도 기대 이상의 역할을 다해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장 접견

참모총장은 8월 3일,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 자체적인 내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외부기관과의 견고한 협조체제 구축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유익하고 뜻깊었던 만큼 앞으로 공군에 대해서도 적극 조언을 해 주시길 바라며, 국방기술품질원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넘어 능동적인 상호보완적 협조관계로 한 차원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R FORCE MONTHLY

2011. 09. NEWS

대한민국을 지키는 평화의 눈!

‘Peace Eye’ 1호기 국내 도착

지난 8월 1일, ‘하늘의 전투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Peace Eye, E-737)가 한국에 도착했다. 공중조기통보기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과 해상 표적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까지 탐지할 수 있어 한반도 영공방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주요포원, 물로도 응급환자 후송훈련 실시

항공주요포원(이하 항의원)은 지난 8월 4일, 긴급 상황에 발생환 응급환자를 신속히 후송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물로도 대민요지원 및 대원환자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항의원, 30방운관재단(이하 30단), 제6탐색구조전대(이하 6전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물로도 관제대대에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할 것이다. 관제 대대의 긴급출동요청을 받은 항의원 임무요원과 6전대 항공구조대는 HH-47 구조헬기 포 응급환자를 하역원 응급환자로 긴급후송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항공주요포원장 임정구 대령(전)은, “도서 및 산간요지를 의뢰 시 헬기 임박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1차적인 응급처치만으로도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 응급환자 후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자 및 구조헬기 간 협력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대치하는 능력을 확인·검증하였다.”며 훈련 소감을 밝혔다.

전시 동원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민간항공기 동원, 항공의무후송훈련 '첫 실시'

운군본부 동원처는 지난 8월 24일, 2011년 형지포리검거대연(UFG : Uichi Freedom Guardian) 명칭을 맞아 수원·대구·김해까지 등지에서 A-300 여객기, B-214 헬기 등 민간 항공공송업체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의무후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운군본부 동원처에서 주관하고, 운군군수지원부, 30방운관재단, 5전총

항수비행단, 10·11전투비행단, 항공주요포원, 군공의무지원부, 수·도·대구·부산동원비행단을 10개 부대와 (주)대한항공, (주)한국유항, (주)울이항공을 3개 민간업체가 참여했다. 그간 후송기와 헬기를 이용한 의무후송훈련이나 민간항공기 동원 화물운송훈련은 실시되었지만, 전시 동원력 선포 이후를



를 가정하여 민항기가 참여하는 실제 항공의무후송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군본부 동원처장 조현기 대령은, “동원항공기 항공의무후송 훈련은 유사시 민항기를 이용한 대원환자 항공수송지원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며, “훈련 중 식별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전시 동원임무를 발전시키고, 수송지원 능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운군본부 법무실에서 민간인 소재자 두

‘전쟁법 핸드북’, ‘전재법 핸드북’

헌재는 법률전쟁(Lawfare)이라고 불릴 만큼 전쟁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운군본 법무실에서 만든 ‘전쟁법 핸드북’, ‘전재법 핸드북’이 책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쟁법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병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 간부교육과 병사교육이 별도로 제작됐다.



법무실에서 만든 또 하나

책자 : 전우에게

상처 주는 법, 힘을 주는 법 등 영웅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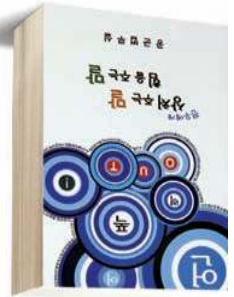
해될 수 있는, 그러나 대안자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인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쟁법복의 체계계를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연이푸

력을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줄게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입원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학대당한 탓인지 소녀의 마음은 온통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 내거나 거친 공격도 서슴지 않는 등 극심한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던 그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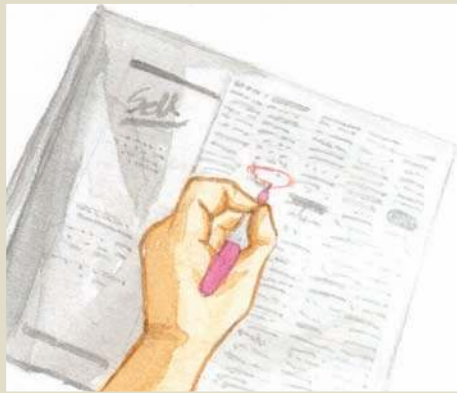
어느 날 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한 할머니가 소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손길을 뿌리치며 또다시 모진 말들을 쏟아냈지만, 할머니는 이에 굴하지 않고 소녀에게 다정히 말을 걸며 세상의 아름답고 밝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앞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국화꽃들이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예쁜 국화를 보며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기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보며 생각에 잠긴 할머니는 국화를 한 아름 사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애야, 정원에서 국화를 보니 네 얼굴이 떠올랐단다. 보렴, 네 모습처럼 너무나 곱지 않니?”

싸늘하게 할머니를 노려보던 소녀의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 바로 네 생각.” 활짝 꽃망울을 틔운 국화 한 다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는 할머니의 사랑 앞에서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 손사래를 치며 외면할 때 한없는 사랑으로 소녀를 감싸 안은 할머니는 그녀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증오라는 어둠을 내쫓기 시작한 소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된 소녀는 우연히 신문에서 광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글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앤 설리번(Anne Sullivan, 1866~1936), 장애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집 안에만 갇혀 지내던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2011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

Aerospace Weapon System Development Seminar

- 일자 : 2011년 10월 19일 (수)
- 장소 : 서울 ADEX 2011 행사장 (서울공항)
- 주최 :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후원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군사과학기술학회
- 문의 : 02)506-5753, 042)821-3366
www.seoulairshow.com

Culture

36.5

휴고

* Hollywood English

호프만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

* 인생은 아름다워

도시에서 농부로 살기


* Art in Everyday

유명유죄 무명무죄(有名有罪 無名無罪)
선정성도 이름값에 따라 다르다?

* Air-Supply

9월의 문화행사

* Preview

WELCOME
TO

THE
INVENTION
OF
HUGO
CABRET
by Brian Selznick





휴고 카브레의 발명품이 영화로 탄생하다.

이번 글은 희소식을 전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두근두근, 쿵쿵, 짹! 희소식이란 바로 브라이언 셀즈닉(Brian Selznick)의 소설 <휴고 카브레의 발명품(The Invention of Hugo Cabret)>이 영화화됐다는 것입니다. 아, 브라이언 셀즈닉의 놀라운 상상력과 스토리가 영화로도 탄생한다니! 게다가 놀랍게도 범죄영화 전문가인 말콤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 <휴고(Hugo)>의 메가폰을 잡았다니! 세상에나, 또 놀랍게도 캐리비안의 해적인 '캡틴 잭 스패로우' 조니 뎀도 제작자로 참여했다니!

영화 이야기에 앞서 우선 작가에 관해 들려 드릴게요. 브라이언 셀즈닉은 삽화를 직접 그리는 작가입니다. <윌트 화이트먼(Walt Whitman)>을 발표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베스트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하기도 했고, 그의 <The Invention of Hugo Cabret>(국내 번역 제목은 '위고 카브레')는 칼데콧상을 수상했습니다. 칼데콧상은 매년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의 어린이도서관협회에서 어린이 그림책의 삽화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휴고)의 원작소설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줄거리와 사건의 개요 등 네러티브와 일러스트레이션, 영화적인 테크닉이 예술적으로 잘 결합된 걸작 중의 걸작이다."

조니 뎀, 거장의 영화를 제작하다.

<휴고>의 제작사는 GK Films입니다. GK는 그레함 킹(Hraham King)의 이니셜입니다. 그레함 킹은 <디파티드(The Departed)>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갱스 오브 뉴욕(Gangs of New York)>도 제작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거장 감독 마틴 스콜세지를 영입하지 않았을까요. 캐릭터와 스토리를 극도로 중시하는 감독이기에 어쩌면 브라이언 셀즈닉과 마틴 스콜세지의 궁합은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니 뎀이 제작자로 가세하는 배경은, 아마도 그레함 킹이 <투어리스트(The Tourist)>를 제작한 내력이 작용한 것 같군요. <투어리스트>에서 조니 뎀은 국제적 범죄자들에게 쫓기는 수학강사의 배역을 능청스럽도록 잘 연기했지요.

기차역에 숨어 사는 한 소년의 꿈과 모험

영화 <휴고>의 주인공은 열두 살 소년 휴고(아사 버터필드)입니다. 박물관 시계공인 휴고의 아버지(जू드 로)는 아들에게 발명품을 하나 선물하는데요, 선물을 공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It's a wind up figure. Like a music box.(뮤직 박스처럼 태엽으로 감아주면 움직여.)" 그런데 불행하게도 휴고의 아버지는 화재로 운명합니다. 그 후 휴고는 파리의 기차역 안에 숨어살면서 시계를 관리합니다. 그러는 틈틈이 아빠가 준 수첩의 설명에 따라 발명품 로봇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부품으로 쓸 장난감을 훔치다가 가게 주인인 조르주 영감에게 들

키고, 수첩을 돌려받기 전 벌로서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리가 끝나고, 발명품 로봇의 태엽을 감아줄 열쇠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열쇠 구멍은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의 열쇠를 찾아라!

하루는 거처가 불분명한 휴고가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소녀와 마주칩니다. 소녀는 이사벨(클로이 모레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참 놀랍게도 소녀는 하트 모양의 열쇠를 목에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을 모르는 이사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 열쇠가 네 아빠의 발명품에 맞는다는 거지?(Why would my key fit into your father's machine?)" 마침내 둘은 태엽을 감아봅니다. 그러자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수한 그림들은 휴고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메시지일까요? 그때부터 네버랜드, 오즈, 보물섬이 다 모인 것 같은 무대에서 놀랍고 신비로운 모험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전설적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의 부활

<휴고>는 프랑스 SF 영화의 선구자이자 세계 최초로 종합촬영소를 세운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스토리입니다. 멜리에스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영화 기법을 선보인 뒤 홀연히 사라졌고, 세인의 기억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시네 주르날>의 편집장이 멜리에스를 발견합니다. 멜리에스는 파리의 몽파르나스 기차역에서 장난감을 팔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멜리에스와 그의 영화들이 서서히 재조명됩니다.

브라이언 셀즈닉은 <에디슨의 이브-기계 생명에 대한 마술적 탐구의 역사>를 읽다가 영감을 얻었고, 그리하여 조르주 멜리에스에 관한 책을 써보기로 했으며, 마침내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로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야기를 구상할 당시 브라이언의 취재기록에 의하면 멜리에스가 만들어 박물관에 기증한 자동인형이 박물관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게 된 브라이언의 상상력은 그때부터 춤을 추었던 것이겠지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때 첫 선을 보일 대작 <휴고>! 벌써부터 두근두근, 기다려집니다. **AF**





오페라 무대 위의 사람들 ⑨

호프만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진다.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일명 '칼때기 법칙'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프랑스의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 그가 작곡한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 호프만이라는 남자가 겪은 장대한 사랑 이야기... 그것은 독일의 한 선술집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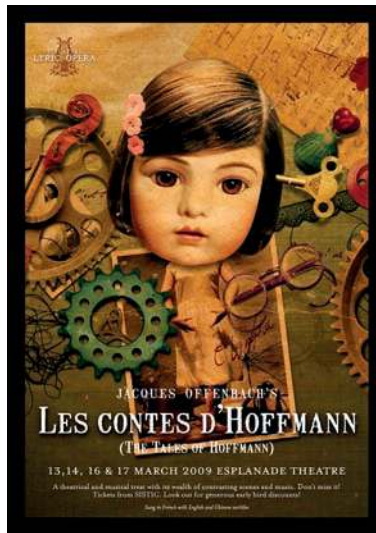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는 독일의 옛 도시, 뉘른베르크. 어느 허름한 선술집에 젊은이들이 모여 왁자지껄 술을 마시고 있다. 선술집의 후미진 뒤편에 놓인 큰 맥주통, 그리고 그 맥주를 모두 마시려는 듯 거나하게 술에 취한 젊은이들은 호기가 가득하다. 술을 마시며 기분이 좋아진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우리의 주인공 호프만도 자신의 연애담을 꺼내놓기 시작한다.

호프만의 첫 번째 여인은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 '올림피아'. 부드러운 흰 살결과 반짝이는 눈을 지닌 소녀 올림피아를 처음 만난 호프만은 오로지 그녀 생각뿐이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그저 올림피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호프만... 올림피아는 아리따운 목소리로 "숲속의 새"를 노래한다. "숲속의 새들도, 밤하늘에 빛나는 새들도 모두가 어린 소녀에게 속삭이네." 반짝이는 눈빛으로 노래하는 올림피아의 모습에 호프만은 황홀해 하지만, 올림피아의 아리따운 목소리는 어느새 작아지고, 그녀는 점점 기운을 잃어간다. 그러자 올림피아의 아버지가 하프 반주자에게 눈치를 준다. 얼른 올림피아의 등 뒤로 가는 하프 연주자,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있는 태엽을 감기 시작한다.

그러자 다시 들려오는 노랫소리... 호프만이 한눈에 반한 그토록 어여쁜 소녀는 태엽인형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헛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호프만... 그는 허탈한 마음에 의자에 주저앉고 만다.

이제 무대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예부터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드는 이 도시에는 환락의 거리와 화려한 상점이 넘쳐난다. 이곳 베니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장안에 소문난 미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줄리에타'였다. 화려한 가구와 장식에 있는 사치스러운 방에 사는 줄리에타는 수상 도시 베니스를 유유히 흐르는 곤돌라를 타고 자신의 미모를 뽐내고 있다. 아름다운 "벧노래"를 부르며 노래하는 줄리에타, 그녀를 본 호프만은 그 숨 막히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하지만 줄리에타는 사실 악마와 결합한 위험한 여인. 줄리에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호프만은 결국 그녀의 정부를 제거하지만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줄리에타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곤돌라를 타고 물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또 한 번 좌절하는 호프만... 하지만 줄리에타 역시 배신을 당해 비참한 죽음을 맞고, 무대는 다시 독일로 옮겨진다.

뉘른의 한 저택. 언제나 음악이 흐르던 이 집에는 쳄발로와 바이올린이



놓여있다. 이 저택에 살고 있는 여인 '안토니아'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서 음악적인 재능을 이어받은 성악가... 하지만 결핵을 앓게 된 그녀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랑하는 호프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던 그녀. 안토니아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 사랑은 멀리 떠나 버렸네. 너무도 달콤한 기억, 너무도 쓰라린 기억.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충실히 당신과의 사랑을 지키고 있어요." 쳄발로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안토니아는 가녀린 목소리로 슬픈 사랑을 노래하는 가련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건강을 염려해 노래를 만류하는 아버지, 그는 음악 때문에 딸마저 잃게 될까 근심에 사로잡힌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를 틈타 문병객으로 찾아온 호프만은 사랑하는 연인을 다시 만난 기쁨에 사랑의 이중창 "이것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건강을 위해 다시는 노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이때 나타난 미라클 박사. 안토니아를 치료하려 온 미라클 박사는 오히려 안토니아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 사실 미라클 박사는 그녀의 어머니를 앓아간 악마의 영혼이었던 것. 어머니의 초상화에서 악령을 불러내 안토니아와 함께 3중창을 부르던 미라클 박사는 벽에 걸린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며 안토니아에게 더욱더 숨겨진 노래를 부르게 한다. 더욱더 걱정적으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그리고 그에 맞춰 노래하는 안토니아... 미라클 박사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던 안토니아는 결국 호프만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뉘른베르크의 선술집. 자신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모두 마친 호프만은 건배 제의를 한다. 그때 무대 밖에서 들려오는 박수소리. 선술집 옆에서 노래를 부르던 프리마 돈나 '스텔라'

의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들려온다. 짐짓 다른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호프만. "그래, 나의 이야기는 스텔라의 세 가지 이야기였어. 어린 소녀, 관능적인 미인, 예술가" 부서져 버린 올림피아, 살해당한 줄리에타,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버린 안토니아... 이들은 결국 스텔라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 허무함을 깨달은 호프만은 여인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당당하게 스텔라에게 이별을 고한다. "나를 떠나요!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는 또다시 술잔을 기울이는 호프만. 술로 슬픔을 달래는 선술집 남자들은 또 다른 사랑이야기로 밤을 지새운다.

이 오페라에 얽힌 또 하나의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전쟁놀이' 흥내를 냈던 유대인을 그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화에 흠뻑 젖었던 선율 '벧노래'가 바로 호프만의 두 번째 여인 '줄리에타'와 그의 친구가 부르던 이중창이다. 유유히 흐르는 베네치아의 달빛 사이로 흘러가는 곤돌라의 벧노래. 유난히도 이 노래를 좋아했던 부인을 위해 유대인 수용소에서 "호프만의 벧노래"를 들려주던 귀도는 결국 나치의 패망을 하루 앞두고 사살당하고 만다. 그럼에도 인생은 아름답지 아니한가. AF

도시에서 농부로 살기

도시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층건물 꼭대기 층의 창가에 서면, 일상에서 갑갑해진 가슴이 잠시나마 탁 트인다. 이마를 맞대고 이어진 옥상들의 풍경을 구경하는 일도 또 하나의 재미. 더군다나 요즘은 옥상정원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달라진 풍경이다.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을 그리워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나도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상추나 키워볼까' 하고, 실제로 이런 관심은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뉴욕에는 옥상에 텃밭을 둔 빌딩만 600개가 넘고, 그런 텃밭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업도 등장했다고 한다. 또 밴쿠버 인구의 44%, 베를린 시민 8만 명이 도시의 농부들이다.

도시공간의 빈 공간이거나 집안 베란다, 옥상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채소나 꽃을 기르며 농사짓기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도시농업.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술관에서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식물을 키우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김범_무제(그곳에서 온 식물들)



마틴 크리드

먼저 현대미술작가 김범. 그가 키우는 작품은 ‘그곳에서 온 식물들’이다. 그가 이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그는 어느 날 아침 집으로 배달된 신문에서 식물의 이미지를 골라, 역시 신문에 실린 흙의 이미지로 가득 찬 화분에 심었다. 다행히 식물들은 단단히 뿌리를 내렸고, 그는 매일 아침 배달되어오는 신문과 잡지에서 새로 발견한 식물의 이미지와 흙의 이미지를 더해가면서 이 식물들을 키운다. 그리고 그렇게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정기적으로 분갈이도 해준다. 김범은 이 작품을 통해 신문이나 잡지 같은 미디어와 그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외부의 더 넓은 세계를 알게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된 세상에 자신의 삶과 생각의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세계가 전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신문에 실리는 기사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세상의 일부일 뿐, 그리고 어쩌면 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온 식물들’을 보면서 실제 식물이라고 착각하듯, 미디어가 제공하는 세상 역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식물들은 일깨워준다.

김범은 회화, 드로잉, 오브제, 설치, 비디오, 책에 이르는 폭넓은 매체를 사용해 작업해 온 작가다. 언제나 어느 누구도 생각내지 못한 작품들을 발표해서 동료작가들이 더 궁금해 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들을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의 1996년 작품인 ‘변신술’ 역시 그렇다. 책의 형태로 발표된 이 작품에서 그는 나무, 풀, 바위, 냇물, 사다리, 문, 표범, 에어컨이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도시 농부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 가운데 ‘나무가 되는 법’을 잠시 감상해 보자.

마당, 산, 평야 등 어느 곳이나 흙이 있고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자리를 정한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고향으로 가는 것을 권하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곳이든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큰 화분을 이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발을 흙에 묻고 팔을 쳐들어 일정한 자세를 취하되 그 자세는 자신의 성격, 평소 생활자세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곧거나, 굽었거나, 비틀린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거나 또는 평소에 직업상, 습관상 많이 취하던 자세를 응용할 수도 있다.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어떠한 말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전에 남에게 발치에 물을 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되, 누군가 발치에 물을 부어주면 막연히 행복해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김범 <변신술(1996)> ‘나무가 되는 법’ 중 일부)

이 글을 읽다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머릿속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 역시 바로, 김범 작품의 일부다. 현대미술작가 김범은 꽃미남 배우 김범과 이름이 같아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배우 김범은 눈을 씻고 보게 하지만, 작가 김범은 마음을 씻고 보게 만든다.

미술관 안에 식물을 들여놓은 또 한 사람의 현대미술작가는 마틴 크리드 (Martin Creed)다. 그는 영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2009년 11월 서울의 한 미술관 안에 선인장 화분을 들여놓았다. 그냥 한두 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키 작은 선인장에서부터 큰 선인장까지 줄 세우기를 한 것이다. 그는 늘 세상 전체가 들어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키가 서로 다른 선인장들을 늘어놓고 세상의 모든 선인장을 보여준 것이다. 마틴 크리드는 이 작품을 우리의 일상과 연관시켜 말한다. 오늘, 내일, 모레... 내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을 뛰어넘어 모레로 곧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처럼, 일정한 크기로 커지는 선인장을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으로서의 일상, 그 일상의 소중함을 시각화했다. 스펙터클을 외치며 더 크고 자극적인 변화를 외치는 현대인들에게 그는 작고 사소한 일상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다. 그의 작품들에 버드한 이름 대신 Work No.**라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도, 특별하지 않은 무엇으로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한 해 전인 2008년에는 서울의 한 갤러리 공간의 절반을 보랏빛 풍선으로 가득 채운 작품을 선보였다. 그 안에서 관람객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업 공간의 절반은 자신의 작업으로 채우지만 그 나머지는 관람객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갤러리 공간의 절반은 자신이 풍선으로 채우고 나머지 남은 절반을 관람객들이 들어가 채우도록 한 것이다. 결국 관람객이 풍선이 찬 공간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김범과 마틴 크리드, 두 사람 모두 관람객이 직접 상상하고 뛰어든 때 작품이 완성되는 희열을 느끼며 세상과 소통한다. 한 사람은 매일 전해지는 바깥세상 이야기들로 식물을 키우고, 한 사람은 식물들을 통해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운다. 방 안이나 책상 앞에 작은 화분 하나 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 식물을 당신은 무엇으로 키우며, 그 화분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AF**



마틴 크리드

유명유죄 무명무죄 (有名有罪 無名無罪)

선정성도 이름값에 따라 다르다?



현아

라니아

요즘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군인이라면 꽤 우울할 법하다. 이제 현아의 '버블팝'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버블팝'의 무대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3사에 '권고' 조치를 내렸고, 현아의 안무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아측은 "안무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버블팝'의 활동을 접었다. 연말 음악 프로그램에서 특별 무대라도 하지 않는 한, '버블팝'의 무대를 다시 볼 가능성은 없어졌으니, 군인들로서는 땅을 치고 아쉬워할 일 아닐까. 현아뿐만이 아니다. 최근 KBS <출발 드림팀 2>라는 체육게임 프로그램에서도 선정성 논란이 일어났다. 수영복에 가까운 의상을 입은 여성 연예인들에게 다양한 게임을 시키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다. 최근 컴백한 그룹 씨스타는 아예 "선정성 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안무가 최대한 '야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온 국민이 보는 지상파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걸그룹의 춤이 보기 좋아도 미성년자는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모습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아의 '버블팝' 무대 역시 방송에서는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었다고 할만하다. 극도로 짧은 핫팬츠에 정면을 향해 엉덩이를 돌리는 춤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보는" 무대로는 부적합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수들 중 현아만 계속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실제로 현아는 첫 솔로곡 'Change', 소속된 그룹 포미닛을 통해 발표한 '거울아 거울아', 이번 '버블팝' 까지 모든 무대가 선정성 논란의 대상이 됐고, 결과적으로 규제를 받았다. 현아만 유독



선정적인 춤을 춰서일까. 하지만 그룹 걸스데이는 속바지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을 쳤고, 라니아 역시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무대는 큰 탈없이 넘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아를 비롯한 최근 선정성 논란들은 심의기관에서 먼저 선정적이라거나, 무대를 시정하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그에 따라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 기구에서 심의를 한다. 다시 말해 선정성의 기준은 여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그것이 심의기구에 민원의 형태로 접수되느냐인 셈이다. 극단적으로는 대중 또는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 현아처럼 '섹시 아이콘'의 위치에 있는 가수들이 유독 집중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반면 큰 인기를 얻지 못하거나, 섹시한 이미지가 아닌 가수들은 다소 선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해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선정성의 기준 중 하나가 대중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느냐?이기도 한 만큼, 논란의 대상이 심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선정성 논란은 궁극적으로 선정적이지 않은 방송을 위한 과정이다. 논란을 통해 건전한 방송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논란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면을 들어가 보면 그와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언론은 '선정성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온갖 선정적인 화면을 '자료사진'으로 보여준다. 또한 다른 지면에서는 '숨막히는 뒤편', '하의 실종' 같은 문장과 함께 노출 많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앞다투어 실는다. 대중이 가수의 선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선정적인 무대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언론들은 오히려 선정성 논란 자체를

선정적으로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독 현아처럼 섹시 이미지를 부각시킨 여성 가수들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많은 미디어에서는 선정성 '논란'에만 관심있을 뿐이고, 논란에 해당되지 않는 연예인의 노출은 거의 제한 없이 공개한다. 최근 몇 년간 걸그룹이 갈수록 노출을 강조하는 무대를 꾸민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걸그룹은 청순함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만 들어가면 온갖 선정적인 사진들이 도배되고, 그런 사진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좋은 위치에 자리잡는 상황에서 걸그룹도 보다 섹시할 것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걸그룹 개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꾸 '야할 것'을 강조하는 방송과 언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의 선정성 논란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상파에서 선정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방송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방송들은 심야 시간대에만 편성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은 아예 심야 방송에 출연조차 할 수 없다. 미국 역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내용이 방송되지만, 방송 시간대, 지상파나 케이블이냐의 여부에 따라 선정성의 수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지금 한국에서도 필요한 건 논란이 되는 특정 가수의 무대를 아예 볼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 아닐까. 현아의 '버블팝' 무대를 누군가는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선정성은 '논란'보다는 현명한 '제도'를 만들 때 줄어들 것이다. **AF**

사랑을 건 한판 승부!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아가씨와 건달들〉은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있는 캐릭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이지나는 “남녀간의 사랑, 남자들간의 우정 등 변하지 않는 감성이 글로벌하고 현대적인 비주얼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주는 짜릿함과 순애보,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눈여겨 볼만하다.

주인공들의 캐릭터도 흥미롭다. 일단, 연하남 ‘네이슨’에게 폭 빠진 아가씨는 옥주현이 맡았다. 인생 자체가 내기인 베테랑 승부사, 경찰과 갱단에게 쫓기고 약혼녀의 등살을 피해 도망다니는 좌충 우돌 사고뭉치 건달 역할은 배우 진구가 소화한다. 진구는 스크린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또 다른 모습으로 무대 위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14년째 약혼 중인 아가씨와 건달. 평범하지만 용기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 일시 : 9월 18일까지
-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 가격 : VIP 13만 / R 10만 / S 8만 / A 5만원
- 홈페이지 : www.guysanddolls.co.kr



세상 마지막 순간보다 슬픈 건 나로 인해 눈물지를 ‘당신’입니다.

〈국화꽃향기〉

소설과 영화로 잘 알려진 〈국화꽃향기〉가 음악이 흐르는 이별연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진한 국화꽃향기 속에서 굳건한 나무와 같은 승우의 사랑, 거침없이 나를 내어주는 미주의 사랑, 지켜보고 지켜주는 정란의 사랑. 주인공들의 청춘은 국화꽃향기보다 더 진한 눈물냄새를 나게 한다.

특히 무대 위로 흐르는 음악은 연극의 진솔함에 아우라를 더한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피아니스트들의 음악을 극중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데, 비슷한 정서의 다른 음악들이 묘한 감동을 자아낸다. 국화를 닮은, 가을의 향이 나는 인물들의 아스라한 감정들이 작품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음악이 또 하나의 조연인 셈이다.

연극은 괜히 사람을 추억에 젖게 한다. 첫사랑은 가슴 아프지만, 추억은 여전히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연극 〈국화꽃향기〉는 알게 해준다. 눈물에도 무게가 있다면, 그것은 지나간 과거를 그만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당신 삶의 무게를 묵직하게 할 연극, 〈국화꽃향기〉의 막이 올랐다.

- 기간 : 10월 9일까지
- 장소 : 서울 KT&G 상상아트홀
- 가격 : 전석 5만원
- 홈페이지 : www.play-kukhwa.co.kr



Opinion

진정한 가을은 오고 있나

* 장병기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화

* 책마을

건강검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 Health Diary

진정한 가을은 오고 있나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기상재해가 많았다.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의 2배에 달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도 잦았다. 하필 얽힌 데 덮친 격으로 태풍도 서해상으로 유입되어 태풍의 위험반원(태풍중심에서 오른쪽)에 든 한반도는 강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 그토록 잔인했던 여름은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9월이 다가왔다.

예전의 9월은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이때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차갑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점차 우세해지는 시기이다.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이 많아 간단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다. 하루의 활동시간 중에서 가장 소음이 적은 아침은 우리들의 신경을 안정시켜 주며, 푸른 하늘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혹서기도 끝나고, 호천(好天)일수도 증가해 공군 작전수행에 있어서도 적합한 시기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항상 청명할 것 같았던 '9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 9월 평균 최고기온은 27도로 과거 30년 전에 비해 4도나 상승하였다. 또한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34도에 육박하는 늦더위 발생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을 시작일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월의 기온 상승은 악기상을 초래해 공군 작전수행에 영향을 주며, 장병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



2002년 태풍 루사 위성영상

루사 피해로 인한 강릉 침수

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압골 통과 시 집중호우 가능성을 높이고, 짙은 안개 형성을 촉진시켜 항공기 이착륙이나 공대지 임무에 제한을 준다. 또한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인체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온 상승은 질병 매개체(진드기 등)의 번식을 활발하게 해, 아열대성 질병에 속하는 쯤쯤가무시증의 발병률도 높인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쯤쯤가무시증은 2000년대 들면서 이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많은 비로 제초작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해야 하는 시기라 쯤쯤가무시증을 비롯한 가을철 발열성질환(신증후군출혈열, 렘토스피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뿐만이, 가끔씩 찾아오는 대형 태풍들도 골칫거리다. 5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는 2002년 9월 초에 한반도를 관통하였고, 4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태풍 매미도 2003년 9월 중순경에 한반도에 상륙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피해 순위 1, 2위의 태풍이 모두 9월에 영향을 준 것이다. 만약 올해도 9월 중에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을 한다면, 역시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

9월은 화창한 날씨 속에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좋은 시기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을날씨의 변화는 진정한 가을이 오는 것을 더디게만 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현상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개인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7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 산하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 협의체)에서 발표된 4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현상이 명백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인간이 초래하는 지구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한국도 기후변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연유로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이 되었음에도 하계 악기상 대비 집중 감시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AF**



건강검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남은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흔히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 검진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나중에 큰일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Health Diary>에서는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의 필요성

얼마 전 항의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던 30대 남성분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수신증이 발견, 이어 추가검사에서는 큰 요로결석이 나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40대 남성분은 우연치 않게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발견, 심장내과 전문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자각증상이 없어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적잖이 놀랐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혹시나 내 몸에 병이 있을지 하는 걱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알 수 있는 질병

기본적으로 빈혈,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에이즈, 매독 등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압과 혈당 검사를 최소 1년에 2번 받고, 자신의 평소 혈압과 혈당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흡연, 비만, 고혈압 등 심장병 발생 위험인자가 있다면, 운동부하 검사를

추가로 받아 심장질환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검사가 포함돼 위암, 간암검진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은 간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검사가 필수입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들은 정기적인 복부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대장암의 경우, 병이 진행될수록 대변검사로 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초기 암은 찾기 어려우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비만인 사람, 육식을 즐기는 사람,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50세 이상 검진자들은 대장암 고위험군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으면 3~5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흡연자의 경우, 가슴 X선과 폐기능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특히 20년 이상 흡연자는 저선량 흉부CT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갑상선암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

신체의 이상 유무를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40대 이상은 더욱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령일수록 성인병을 포함한 중증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30대의 경우, 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칫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문란한 성생활 등의 생활습관이 훗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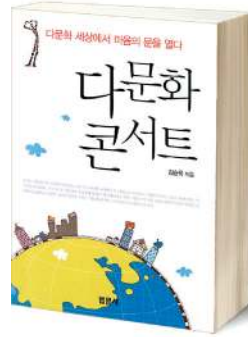
향의원 검진센터 프로그램 소개

향의원 건강관리센터는 2009년 6월 개원한 이후로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사들을 포함, 공군군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진대상을 20·30년 근속대상자까지 포함, 보다 많은 공군식구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호화로운 민간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쾌적한 검사환경 및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내원하는 공군장병 및 군무원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향의원 내 전문 진료과로 이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삼성서울병원 등의 국내 최고수준의 병원으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진체계(MOU)도 구축했습니다. 끝으로 건강검진은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번 달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AF**





리처드 니스벳 지음



김승욱 지음



벤 라이더 하우 지음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주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발을 굴러 제자리걸음을 하며 울동과 함께 배웠던 동요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세계사 수업을 통해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등을 치러내며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언제부터가 외국인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심심찮게 등장하더니 아예 외국인 여대생들이 단체로 나와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찍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또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친근하게 여기며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그러했고, 우리의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다소 편향적인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 오산비행장은 미국 공군이 함께 있어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가령 백인과 흑인 또는 유럽, 아메리카 출신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한국 상점의 주인들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피부색이나 출신지역이 외국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장면들이죠.

‘다문화’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맞고 틀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차이점. 그래서 존중해

줄 부분은 존중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배려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몇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경험하셨던 상처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도 이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성공신화를 일궈낸 우리 교포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외국 영화에서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분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박지성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맨유 팬들이 만든 ‘개고기송’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여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 이러한 문화적인 ‘다름’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책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생각의 지도』(리처드 니스벳 지, 최인철 역, 김영사, 2004), 『다문화 콘서트』(김승욱 지, 법문사, 2009), 『마이 코리아 델리』(벤 라이더 하우 지, 이수영 역, 정은문고, 2011)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9월부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과 더욱 많은 책들을 공유하고 싶은 욕심에 앞으로는 주제별, 테마별로 묶어서 2~3권의 책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눈앞에 성큼 다가온 가을을 풍성한 책들과 함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AF**

2011 September

no.399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공군악대의 九樂

방방곡곡 사들아다니니 좋고
 행사에 연습에 시간 잘 가 좋고
 높은신 분들 많이 봐서 좋고
 많은 사람 즐겁게 해주니 좋고
 여인들에게 인기 많아 좋고
 이쪽 저쪽 잘생긴 전우들 좋고
 선후배 정 끈끈하니 좋고
 이 바닥 사람 많이 사귀어 좋고

무엇보다 음악과 더불어 살아가니 제일 좋더라.

항설 60주년을 축하합니다!
 ♪♪♪
 ♪♪♪



2011 September

no.399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9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9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9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9월 30일까지

1. 태평양 전쟁의 최대 해상공중전으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 전쟁은 무엇인가?
2. 브라이언 셀즈닉의 <휴고 카브레의 발명품>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무엇인가?
3. 프랑스의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작품으로 독일의 어느 한 남자가 겪었던 장대한 사랑을 그린 오페라는?

7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영국 본토 방공전 2. 빈 미술사 박물관 3. 포도상구균 식중독

퀴즈 당첨자 서울 성북구 **이흥구** ● 서울 동작구 **이수은** ● 전남 순천시 **서정이**
서울 동대문 **류휘상** ● 경남 사천시 **최덕희** ● 강원 원주시 **최현종**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간접 · 테러범 · 방산스피이 신고는 국군기무서령부
(☎ : 1337, www.dsc.mil.kr)
간첩선(익 5천만원), 간첩(익월)

공군군악대의 九樂

방방곡곡 싸돌아다니니 좋고
행사에 연습에 시간 잘 가 좋고
높은신 분들 많이 봐서 좋고
많은 사람 즐겁게 해주니 좋고
여인들에게 인기 많아 좋고
이쪽 저쪽 잘생긴 전우들 좋고
선후배 정 끈끈하니 좋고
이 바닥 사람 많이 사귀어 좋고

무엇보다 음악라 더불어 살아가니 제일 좋더라.

창설 60주년을 축하합니다!

